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백 지 은

Pablo Picasso 작품을 응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문 윤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백 지 은

인 준 서

백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새로운 예술양식의 발견은 신선한 예술적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카소는 파격적인 회화 형태로 대중의 예술적인 감성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미술양식을 선보인 선구자이다. 피카소의 미술양식과 표현방법은 대중예술의 일부로 활발히 재창조 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뷰티 분야 중 회화적인 형태인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순수미술의 조형적인 요소들을 응용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창작하고자 한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실제 메이크업의 표현과 가상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자 작품의 자유성, 예술성, 대중성을 동반한 대중예술로써 인간이 갈망하는 미적·예술적 욕구 충족이 가능한 예술형태이다. 메이크업을 위한 드로잉은 예술적 가치보다 계획성을 위한 기록의 용도가 중시되었으므로 대중적인 예술성을 갖춘 형태로 보기 어려웠다. 현대에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형성되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품성을 목적으로 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으로써 뷰티 메이크업을 창의적으로 시각화하고 예술성을 더한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피카소의 독창적인 회화형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카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과 감각적인 색채 사용을 뷰티 메이크업과 접목한 작품으로 제작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해보고자 한다.

실질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나타나는 피카소의 회화적인 특성과 색채를 분류하였고, 피카소의 작품 속 인물의 이미지를 변형, 응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청색 시기, 장미 시기, 큐비즘, 신고전주

의, 초현실주의 총 6시기로 구분 한 후, 모티브 작품을 선정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중 2개의 작품을 제작한 시기는 청색 시기, 초현실주의로 총 8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1 <An Expressionless Face>는 초기 회화형태의 작품으로 점묘법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무희의 화려한 모습을 나타낸 작품으로 현대적인 요소들을 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 3은 청색 시기의 회화 형태의 작품으로 2가지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조로운 구성과 푸른 색채를 주요색으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청색 시기의 첫 번째 작품 <A Aurora Woman>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였으며 두 번째 작품 <Modern Harlequin>은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해석된 할리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 <Shining Faces>은 장미 시기의 회화 형태의 작품으로 여인이 단장하는 모습을 그린 피카소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세 명의 여인들의 구성으로 메이크업의 변화과정을 표현하였다. 세 명의 인물구조는 청색 시기의 단조롭고 차가운 분위기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위한 구성으로 각 다른 얼굴 각도로 여성의 곡선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Cubism>은 큐비즘의 회화적 특징을 담은 작품으로 강렬한 메이크업과 입체적인 도형을 더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깨진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도형을 더해 입체적인 구성을 나타내었고, 강렬한 시선의 인물표현과 최소한의 음영표현으로 3차원적인 큐비즘의 형태를 강조하였다.

작품 6 <Lover and Flowers>는 신고전주의에 나타나는 고전적인 분위기의 작품으로 피카소의 당시 연인 올가의 모습과 꽃의 이미지를 더해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7, 8은 초현실주의 회화 형태의 작품으로 2가지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초현실주의 첫 번째 작품 <Sweet Dream>은 기하학적인 표현과 인물

을 이목구비를 간소화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피카소의 원색사용과 달리 파스텔 톤의 색채구성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나타내었다. 두 번째 작품 <Lady of My Last Fantasy>는 드로잉 작업 후, 잡지를 오려붙인 콜라주 작품으로 현대적인 요소들을 더한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을 구성한 색채는 원작과 동일한 색채를 활용하였지만 사용된 위치는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사진으로 눈동자를 나타냈고,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모티브 작품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현대적인 사진으로 콜라주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1. 뷰티 일러스트레이션(Beauty Illustration).....	4
2. 피카소(Pablo Picasso).....	24
III.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46
2. 작품 제작 및 해설.....	48
IV. 결론.....	7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구성방법의 순서.....	21
<표 2> 작품디자인 계획.....	47
<표 3> 작품 1의 구성.....	50
<표 4> 작품 2의 구성.....	54
<표 5> 작품 3의 구성.....	58
<표 6> 작품 4의 구성.....	62
<표 7> 작품 5의 구성.....	65
<표 8> 작품 6의 구성.....	68
<표 9> 작품 7의 구성.....	72
<표 10>작품 8의 구성.....	76

그림 목 차

<그림 1> 피카소, <난쟁이무희>.....	9
<그림 2> 피카소, <아코디언 연주자>.....	9
<그림 3> 피카소, <만티야를 두른 여인>.....	9
<그림 4> 피카소, <바이올린을 켜는 할리퀸>.....	9
<그림 5> 피카소, <게르니카를 위한 데생>.....	10
<그림 6> 피카소, <발자크>.....	10
<그림 7> 피카소, <앉아있는 도라마르>.....	10
<그림 8> 피카소, <앉아있는 누드>.....	10
<그림 9> 피카소, <우는 여인>.....	10
<그림 10> 먼셀 색상환.....	15
<그림 11> 먼셀 색입체.....	15
<그림 12> Sandra Suy의 작품.....	23
<그림 13> Coco Pit의 작품.....	23
<그림 14> Peggy Wolf의 작품.....	23
<그림 15> Peggy Wolf의 작품.....	23
<그림 16> 피카소, <첫 영성체>.....	28
<그림 17>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28
<그림 18> 벨라스케즈, <시녀들 1>.....	28
<그림 19> 피카소, <시녀들 2>.....	28
<그림 20> 마네, <풀밭위의 점심식사 1>.....	29
<그림 21> 피카소, <풀밭위의 점심식사 2>.....	29
<그림 22> 피카소, <코트를 입은 피카소의 자화상>.....	29

<그림 23> 피카소, <자화상>.....	29
<그림 24> 피카소, <과학과 자비>.....	31
<그림 25> 피카소, <무표정한>.....	31
<그림 26> 피카소, <관 속의 카시헤마스>.....	34
<그림 27> 피카소, <머리카락으로 만든 헬멧을 쓴 여인>.....	34
<그림 28> 피카소, <앉아있는 할리퀸>.....	34
<그림 29> 피카소, <비극>.....	34
<그림 30> 피카소, <곡예사들>.....	37
<그림 31> 피카소, <La Toilette>.....	37
<그림 32> 피카소, <다니엘 헨리 칸웨일러의 초상>.....	40
<그림 33> 피카소, <고리머들이 있는 정물>.....	40
<그림 34> 피카소, <안락의자의 올라>.....	41
<그림 35> 피카소, <생각에 잠긴 올라>.....	41
<그림 36> 피카소, <꿈>.....	45
<그림 37> 피카소, <꽃과 함께 있는 자클린>.....	45
<그림 38> 피카소, <꽃 여인>.....	45
<그림 39> 피카소, <칸느의 아틀리에>.....	45
<그림 40> 작품 1.....	51
<그림 41> 작품 2.....	55
<그림 42> 작품 3.....	59
<그림 43> 작품 4.....	63
<그림 44> 작품 5.....	66
<그림 45> 작품 6.....	69
<그림 46> 작품 7.....	73

<그림 47> 작품 8.....77

I. 서론

현대 대중예술은 미술, 음악, 미디어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형태로 창조되고 있으며 옛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대중예술은 흔히 사회적 현상의 진원 역할을 하며 대중문화의 가장 명백한 표현이며 문화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¹⁾.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화두로 하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부터는 예술의 각 장르의 폐쇄성을 거부하고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²⁾. 창의적인 예술의 발전은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통해 폭 넓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여러 문화가 빠르고 쉽게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 활용의 장점은 직접적으로 시공간을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원하는 대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현 시점의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접할 수 있음은 물론 대중이 원하는 미적·예술적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예상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카소는 보수적인 회화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선보인 작가로 혁신적인 회화양식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투영하였다. 피카소의 전체적 회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회화양식과 색채 활용이 돋보이며 꾸준한 작품 생산을 통해 다양한 미술양식이 창조되었다. 피카소의 미술작품은 그림, 조소, 도자기, 삽화,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으나 피카소의 심리가 가장 솔직하게 들어나는 작품은 초상화이다. 피카소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자화상을 그리며 자기 통찰을 하였고, 사랑하는 여인과 가족, 지인들에 대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작품에 나타내었다. 피카소가

1) 최혜원(2007), '대중 예술의 미적 정당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11.

2) 이지(2012), '대중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 :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7.

그린 초상화가 주목받은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이 자유로운 조형요소의 활용과 어우러져 작품 이미지가 독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언급하는 자유로운 조형요소의 활용이란 점, 선, 면과 같은 조형요소들이 인물묘사에 양식화·기하학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간소화한 인물묘사는 고전적인 미술양식을 탈피한 피카소만의 회화양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피카소 작품을 통한 회화 양식의 변화와 같이 뷰티 영역에서도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 회화적인 형태로 확장되어지고 과거에는 메이크업의 계획을 위한 사전구성과 기록을 위한 작업이었으나 현대에는 감성적이며 예술성이 강조된 형태의 작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의 기술적인 측면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실제 인간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순수미술과의 연관이 밀접하다 할 수 있으며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는 피카소의 다양한 시도와 같이 아름다움의 표현방식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양한 표현은 곧 자유롭고 독창적인 뷰티트렌드를 형성시키며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가 과감히 시도되어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자는 회화의 예술성과 피카소의 독창성, 뷰티 트렌드를 결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으로써 메이크업을 예술적으로 시각화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폭 넓은 창작영역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화의 조형요소를 활용하고,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을 분석 후,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화의 조형요소인 점, 선, 면에 관한 분석과 피카소의 작품 중 조형요소가 특징적으로 활용된 작품을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일반적인 색의 개념 및 상징성을 알아보고,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활용되는 색에 관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셋째, 일러스트레이션과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알아보고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방법과 표현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넷째, 피카소 회화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고,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회화적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피카소의 독창적인 표현 방법과 회화적인 특징이 나타난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제작으로 응용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과 피카소와 관련된 인터넷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고, 작품 제작의 재료는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피카소의 시기는 특징적인 회화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총 6 시기인 초기, 청색 시기, 장미 시기, 큐비즘, 신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순으로 분류하여 총 8가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적합한 표현을 위해 피카소의 작품 중 초상화를 모티브로 선정하였고, 초상화 중 회화적 특성과 색채 활용이 도드라지는 작품을 선별하여 최종 선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1) 회화의 표현방법

1970년대 중반부터 제작된 미술 작품들의 주제는 인종문제, 동성애, 페미니즘과 같은 소외된 주제를 담으며, 역사적으로 이래 없는 관심이 회화 구상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대로 설정하고 배치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되었다.³⁾ 다양한 회화적 표현방법은 회화형태, 재료와 도구에 따라 질감과 양감이 다르게 나타나며 가장 기초가 되는 소묘의 조형 요소인 점, 선, 면이 활용되어진다. 소묘란 프랑스어 데시네(Dessiner)에서 유래된 말로 ‘그린다’는 뜻으로⁴⁾,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대상과 상상 속에 존재하는 대상까지 수학적인 재현에 머물지 않고 느낌까지 포용하여 양상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며,⁵⁾ 현대 미술에서 작품은 하나의 메시지로 미술자체에 대한 언급과 비판, 철학적 사유를 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⁶⁾.

조형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형태를 만드는 행위로 재료의 선택과 기법의 연습을 통한 창조적 표현활동을 의미하며⁷⁾, 점, 선, 면과 같은 기초 조형요소의 활용은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시각언어로 차별화된 아우라(Aura)를 가지고, 조형요소와 원리들을 활용한 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예술 기법들에 표현되고 있다⁸⁾. 조형요소의 활용은 작품

3) 김지영(2012), ‘개념미술 이후, 회화로의 복귀 : 제프 월(Jeff Wall)의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48.

4) 김시찬 외(2010),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현문사, p.22.

5) 고보형(2009), ‘인체소묘의 조형성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6) 이동수(2012), ‘현대미술에서 회화적 이미지의 개념화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 학술지 11(1), p.60.

7) 노경아(2005), ‘조형교육을 위한 무대 모형 연구 - David Hockney의 무대미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24.

을 구성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정서가 투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⁹⁾. 이를 위해선 작가의 정확한 의도 아래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한 재료의 선택과 디자인의 구상이 필요하며, 현대에는 조형 요소를 특징적으로 강조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1) 점

칸딘스키는 점은 인간이 남긴 최초의 흔적으로 회화에서 물질로 인식이 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회화에서 시각화 되지 않는 어떠한 점이나 선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가시적인 표현이 필요하다¹⁰⁾. 점은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로 더는 나눌 수 없고 위치만을 나타내며, 크기나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¹¹⁾, 점이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형태와 명암과 크기를 가져야 한다¹²⁾. 한 개의 점은 방향성이 없지만 한 개 이상의 점은 나열되는 위치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며, 여러 개의 점을 겹쳐진 형태로 나열하면 명암이 생겨나 깊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점을 확대했을 때 가장 작은 입자로 볼 수 있으며 연속된 점은 시각적으로 선이나 면, 더 확대해서는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다¹³⁾. 촘촘한 점으로 구성된 점묘법은 견고하고 다부진 부위기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며, 소수의 점으로 구성된 점묘법은 심플하지만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 작업이 아니면 정확한 크기와 균일한 나열로 나타낼 수 없지만 각기 다른 크기와 색감, 명암을 가진 점은 작품 자체의 자유로운 깊이를 나타낼 수 있고, 충분히 대상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점으로 대상

8) 이용우(2010), '점, 선, 면 기초 조형요소를 활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연구', 조형미디어학 학술지 13(4)호, p.196.

9) 오대석(2007),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아트 표현의 실제',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10) 변유미(2009), '점을 통한 조형, 회화 학습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1) 한지수(201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경춘사, p.16.

12) 이영애 외(2000), '뷰티 디자인과 색채학', 서울: 청구문화사, p.16.

13) 양경희(2013),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 시각·촉각 표현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p.3.

을 표현할 때는 윤곽을 표현하는 경계와 양감을 나타내는 확실한 명암 대비가 이루어져야 보다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보일 수 있다.

피카소는 다양한 색채를 지닌 점과 점을 짝은 압력에 따라 인물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피카소의 초기작 <그림 1>은 다채로운 색과 형태의 점으로 대상의 심리와 무희의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그림 2>의 큐비즘 시기에는 어두운 색의 점으로 명암대비를 주어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선의 형태를 구별하는데 응용하였다. <그림 3>은 점묘법을 더욱 극대화하여 다양한 점의 크기와 색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대상을 표현하였고, <그림 4>은 점을 면으로 구분하여 문양이 있는 옷감으로 세분화하여 표현 하였다.

(2) 선

선은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회화기술인 점이 이동하며 생기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또는 점이 모여서 이루는 형을 의미한다¹⁴⁾. 선의 구분은 상·하선, 좌·우선, 대각선, 곡선, 자유 곡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려지는 방향과 두께, 길이, 압력, 도구에 따라 작품의 농도조절이 가능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된다. 여리고 흐린 선은 부드럽고 연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강한 선은 힘과 생동감을 표현 할 수 있고, 선을 응용하면 면과 명암표현, 대상의 질감과 양감표현을 보다 사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다. 선적인 조형은 독립된 존재이며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회화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표현 수단이며¹⁵⁾ 사물의 형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고, 적절히 조직될 때는 리듬을 발생시키는 회화의 본질적 요소로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¹⁶⁾.

이렇듯 선을 활용하여 위치와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의 강·약조절과 명도단계 연습을 통해 정확한 표현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을 긋는

14) 임미라(2007), '뷰티 일러스트레이션과 컬러리스트', 대전: 대경, p.82.

15) 박찬휘(2013), '칸딘스키 추상미술의 특성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16) 정준미(2007), '운필선묘와 드로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p.5.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작품의 주제에 맞는 표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현대에는 다양한 미술재료의 발달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과거 동물의 털을 사용한 브러시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합성모를 이용하여 보다 기능적인 브러시가 생겨났고, 얇은 선과 굵은 선과 같은 자유로운 선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옛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담대한 선의 흐름은 먹의 질감이 보여주는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아름답게 절제된 선을 볼 수 있으며, 현대에는 여러 모양의 브러시 외에도 색연필, 콩테, 연필, 펜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피카소의 대표작인 ‘게르니카’(Guernica, 1937)는 다양한 형태의 선을 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총 45개의 습작이 그려졌으며 황소, 말, 양초를 든 여인 등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¹⁷⁾. <그림 5> ‘게르니카를 위한 데생’(dessin for Guernica, 1937)은 여러 번의 스케치로 거침없는 분노의 감정을 강렬한 선의 움직임으로 표현 하였다. 그 외에도 <그림 6> ‘발자크’(Balzac, 1952)는 최소한의 선으로 인물을 묘사한 작품이며 <그림 7> ‘앉아있는 도라 마르’(Seated Dora Marr, 1938)는 복잡하게 엉킨 수많은 선으로 정밀하고 독특한 작품을 그렸다.

피카소는 다양한 형태의 선으로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투영된 움직임을 표현하거나 대상의 감정을 선으로 해석하여 표현하였다.

(3) 면

면은 점의 확대나 선이 이동한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한한 형태와 넓이를 가질 수 있고, 입체감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써 질감이나 원근감, 색을 표현할 수 있다¹⁸⁾. 명도를 다르게 하면 입체감과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명암표현을 숙지하는 것은 얼굴의 윤곽과 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17) 피에르 텍스, 정진국 역(1991), ‘PICASSO’, 파주: 열화당, p.99.

18) 조미자(2012), ‘점, 선, 면을 활용한 네일아트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2), p.466.

위한 기본이 된다. 선과 함께 대상의 기초적인 구조를 형성하여, 명확한 형상을 만들고, 다양한 형태와 공간으로 발전하여 확대된 점과 선으로서 강한 표현력을 지니게 된다¹⁹⁾. 칸딘스키는 점(point), 선(Line)을 포함하는 마지막 단계로 면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기초 평면이라 하였고, 기초평면 안에 내용을 담은 물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였다²⁰⁾. <그림 8> ‘앉아 있는 누드’(Seated Nude, 1910)는 큐비즘 시기 면을 분할하여 간소화한 작품으로 당시 입체적인 형상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의 회화 형태를 창조하였다. 당시 피카소는 인간이나 사물, 풍경을 모두 면으로 분석하여 해체된 구성을 하였고, 명암대비를 크게 주어 사실적인 원근감과 입체감이 더해졌다.

피카소의 독특한 구성방식은 초현실시기에 돋보이는데 큐비즘 시기와 다른 새로운 인물묘사를 볼 수 있고, 기하학적인 선과 면에 화려한 색채가 더해져 큐비즘시기보다 밝은 색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피카소는 밝은 색채를 초상화 <그림 9> ‘우는 여인’(Weeping woman, 1937)에 사용하여, 인물의 우울한 심리와 대비하여 더욱 극적인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19) 이영애 외(2000), 전제서, p.26.

20) 이지연 외(2011), 점, 선, 면을 통해 본 분장디자인,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7(2), p.116.



<그림 1> 난쟁이 무희 (1901)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28.)



<그림 2> 아코디언 연주자 (1911)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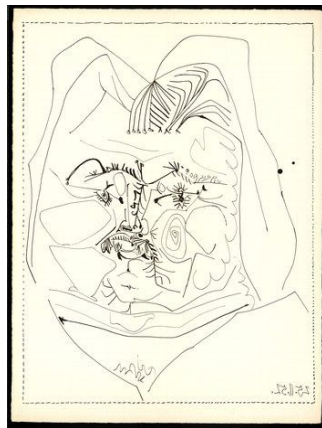
<그림 3> 만티야를 두른 여인 (1917)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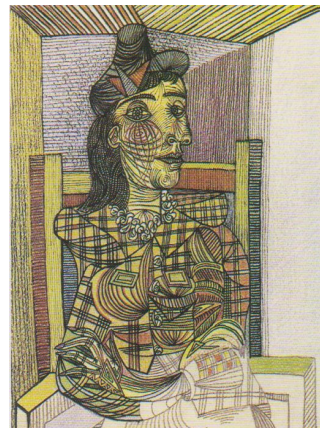
<그림 4> 바이올린을 켜는 할리퀸 (1918)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51.)



<그림 5> 게르니카를 위한
 데생 (1937)
 (피에르 텍스, 정진국 역
 (1991), PICASSO, p.99.)



<그림 6> 발자크 (1952)
 (PICASSO DE MALAGA
 전시대도록(2013), p.81.)



<그림 7> 앉아있는 도라 마르
 (1938)
 (마틸데 바티스티니, 박나래 역
 (2009), 피카소 현대 미술의
 혁명, p.117.)



<그림 8> 앉아있는 누드 (1909-1910)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20.)



<그림 9> 우는 여인 (1937)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p.101.)

2)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의 색의 활용

(1) 색의 개념

색채와 연관된 모든 작업은 색의 기초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활용되며 배합과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이게 된다. 색은 관습적으로 특정한 분위기, 느낌, 의미를 나타내고²¹⁾,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며,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위기를 연출한다²²⁾. 예술가는 자신의 고유한 감성적인 면을 색채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색은 풍부하고 자유로운 내적 표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²³⁾.

색을 인식하는 과정은 물체가 태양빛에 반사되어 일부분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고유의 색을 표출하는 것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고유의 색은 인간의 시세포에 반응하여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 후 색채를 인식하게 된다.

빛, 물체, 눈의 세 요소가 갖추어져야 색채를 인식하며 이를 시각의 3요소라 한다.²⁴⁾ 시각의 3요소를 바탕으로 색상, 명도, 채도를 인식하게 되며 이것을 색의 3속성이라 한다. 색상(色相, Hue)은 반사된 빛을 파장된 순서대로 몇 가지 색을 기준으로 하여 색상환이라는 도표로 나누었다. 빨강(R), 주황(YR), 노랑(Y), 초록(G), 파랑(B), 남색(PB), 보라(P)의 순으로 무지개에서 볼 수 있는 순서대로 나누어 구별되었고, 고유의 색상기호로 표시한다. 일곱 가지의 색이 혼합되는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둥근 고리 모양으로 나열한 <그림 10>²⁵⁾은 한국 산업규격(KS)으로 채택한 ‘먼셀의 색상환’으로 색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21) 주희(2009),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내재된 조형요소와 상징성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22) 홍승완(2002), ‘디자인에 있어 색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 및 국외 웹사이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학 연구 학술지 11(1), p.207.

23) 이진아(2010), ‘색채를 통한 추상적 감성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4) 권영걸 외(2011), ‘쉬운 색채학’, 서울: 날마다, p.25.

25) 이명선 외(2005), ‘미용색채학’, 서울: 군자출판사, p.19.

명도(明渡, Value)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사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밝고 어두움을 정한 것으로 색상끼리의 명암상태, 색채의 밝기를 나타내는 성질, 이러한 밝음의 감각을 척도화한 것이 명도이다²⁶⁾. 반사율이 100%로 높은 것이 고명도 흰색이며 반사율이 0%로 낮은 것이 저명도 검정으로 분류되고, 무채색이 지닌 속성은 밝고 어두움의 정도로만 구별되어 명암의 농담을 나타낸다²⁷⁾. 채도(彩渡, Chroma)는 선명함과 탁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색이 가진 순수한 색상과 탁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색의 순수한 정도, 색채의 포화 상태 색채의 강약을 나타내는 성질을 채도 또는 포화도라 하며,²⁸⁾ 채도가 높을수록 색은 순수한 색으로 보이고 채도가 낮을수록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탁하게 보인다.

이러한 색의 3속성이 적용되어 색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림 11>은 먼셀표색계의 색 입체를 나타낸 것으로 색상, 명도, 채도를 3차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먼셀 색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색의 관계를 나열하면 동일한 계통의 색과 반대가 되는 색, 색과 색을 혼합한 색의 혼색과정을 볼 수 있다. 기준색이 빨간색일 경우, 양 옆에 있는 색은 빨간색과 가장 유사한 상징성과 분위기를 가진 색이며, 색상환에서 가장 반대의 위치에 마주보고 있는 색상을 보색이라 한다. 보색관계에 있는 색들은 서로 성질이 반대되기 때문에 대립하므로²⁹⁾ 보색관계의 색상이 혼합될 경우, 고유의 색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초록색은 보색관계로 두 가지의 색이 혼합되면 탁한 색으로 변하고, 색의 성질을 잃게 되지만 빨간색에 노란색을 혼합하면 주황색으로 보여 성질을 가진 색이 된다. 색상환에 나열 되어있는 방향대로 색을 혼합하면 색의 전체적인 혼색과정을 볼 수 있다.

26) 이영애 외(2000), 전계서, p.35.

27) 정순호(2006), '계절에 따른 Make-up의 색채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코디전공 석사학위논문, p.8.

28) 천지연(2001), 'FACES IN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p.113.

29) 백남원(2013), '채색의 기술', 서울: 연두m&b, p.105.

(2) 색의 상징성

색이 상징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색채의 연상은 개인의 연령, 직업, 경험, 교육, 환경, 국가, 지역, 시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³⁰⁾ 색에 따라 인간 대부분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개인이 기억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어떤 소리나 형태, 맛, 냄새 등을 접하면 색채와 관련시켜 마음속으로 유추하게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연상반응이 일어나게 된다³¹⁾. 색은 수반되는 객관적 감정의 색채가 있고, 인간에게 미치는 기본적인 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색에 대한 감정을 활용하여 생활전반에 적용되고 있다³²⁾.

공통적인 상징성을 가진 색은 인간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교통신호의 색 표시는 세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색의 상징성이다. 개인별로 다르게 인식하는 색은 개인 생활환경과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다르게 연상된 기억이 만든 상징성을 말하며 색을 지각할 때 보는 이의 감정, 문화, 경험으로부터 상징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기호에 따라 연상되는 색의 상징성을 의미한다. 이렇듯 색은 시각 차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같거나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시각에 의한 감정효과는 색채뿐만 아니라 형(形)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색이 형보다는 좀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³³⁾.

예를 들어 동그란 형태의 돌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경우, 돌이 뜨거운 것처럼 연상이 되고 파란색을 칠해놓으면 차가운 돌로 연상되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색이 수반하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색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따른 분위기에 맞추어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30) 배용진 외(2010), '디자인을 위한 색채', 파주: 지구문화사, p.58.

31) 송민정(2005),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이미지와 선호 색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32) 이명선 외(2005), 전계서, p.88.

33) 김덕태 외(2001), '색채학', 서울: 일진사, p.126.

색채는 메이크업 표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메이크업이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색채는 메이크업 자체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종이 지닌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색채의 조화가 다양해진다³⁴⁾.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색의 상징성으로는 인종, 계절, 트렌드 컬러, 의상, 질감, 시대, 전체적인 스타일 등으로 사실적인 인물 묘사에 필요한 색과 상징적으로 연상되는 색의 이미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미용분야와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유행하는 색이 가진 상징성이 존재하므로 시간이 지나도 당시의 트렌드를 색을 통해 읽을 수 있게 된다. 뷰티 트렌드는 시대적, 계절적으로 패션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크업의 이미지와 색채가 변화되며,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에 따라 상징적인 메이크업 이미지와 특징적인 색채가 존재한다³⁵⁾. 계절감을 의미하는 색의 상징성으로 봄에는 중간 톤과 밝은 톤, 여름에는 밝은 톤, 가을은 중간 톤, 겨울은 어두운 톤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⁶⁾. 메이크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색상의 이해는 창조적인 작업으로 스킨 톤과 캐릭터 디자인, 조명과 원색의 혼합을 돕고, 넓은 영역으로 컬러를 혼합한 창의적이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³⁷⁾.

(3) 색의 활용

고유한 색의 배색과정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가 높아지는데 색의 심리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 배색 테크닉 중 유사색상, 동일계열로 배색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효과를 줄 수 있고, 색상환의 순서대로의 색상을 나열하는 방법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보색을 활용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메이크

34) 정진경(2005), '효과적인 뷰티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대구대학교 미술디자인학과 서양학과 전공 석사학위논문,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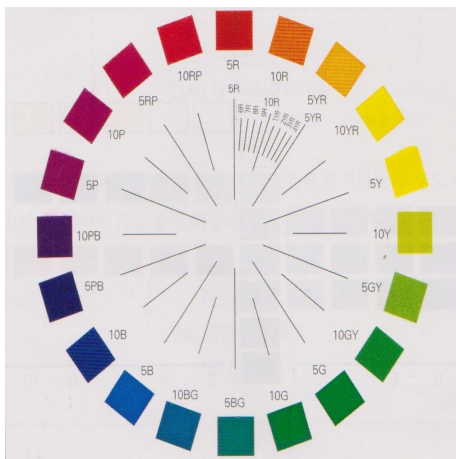
35) 광혜선 외(2012), '패션과 뷰티 유행색의 비교 분석 : 2010~2013년 트렌드 컬러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6(4), p.23.

36) 하경연(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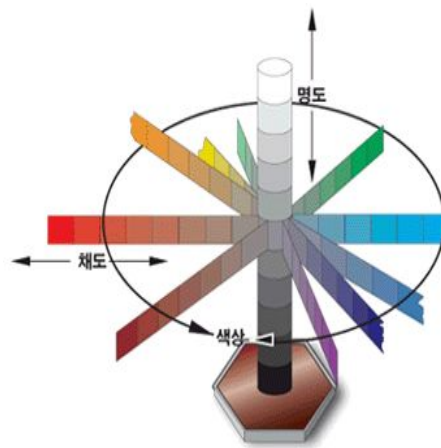
37) 이선주(2012), '색채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변화 연구 : 2010년부터 2012년 트렌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지 6(3), p.155.

업의 분위기에 따라 배색 구성이 좌우되는데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유사색상 혹은 동일색상 대비로 이루어지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분위기는 보색대비나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색상 계획(Color Planing)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배색 테크닉을 사용하여 이미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³⁸⁾, 색의 상징성의 내용이 충분히 수반하여야 적절한 공감의 형성되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메이크업과 색의 활용은 절대적인 관계로 본연의 메이크업 색과 빛에 반응하여 보여 지는 메이크업의 음영과 농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된다.



<그림 10> 먼셀 색상환
(이명선 외(2005), 미용색채학, p.19.)



<그림 11> 먼셀 색입체
(<http://blog.daum.net/isweb/267> 2013.12.28.)

38) 이재만(2007), '컬러배색 코디네이션', 서울: 일진사, p.24.

2)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회화의 일부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 상징적 의미로 전달하는 시각적인 언어로 문자로 풀어낼 수 없는 감성을 그림으로 함축적·상징적으로 전달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감성을 이끌어낸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삽화 또는 이야기를 해설하는 그림으로서의 회화이고³⁹⁾, 도형, 도표, 삽화 컷, 만화, 사진 등 내용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 설명 기능이나 장식적인 기능을 갖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⁴⁰⁾. 본래 일러스트레이션의 시작은 고대 벽화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과 인간의 일상문화를 남겨 역사로 기록하기 위해 그려지거나 무덤에 고인을 애도하는 표식으로 또는, 주술적으로는 원하는 이상을 그려 기원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볼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수렵활동이나 일상문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려 넣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은 세계 각지의 선사 미술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⁴¹⁾. 문명의 발달로 인해 벽화의 주제와 표현방법이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회화 작품으로 창조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광고효과가 목적인 상업성 일러스트레이션과 예술 활동으로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까지 활용 범위가 넓다. 상업성 일러스트레이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고, 출판물과 제품의 표지, 간판, 포스터와 같은 광고 등으로 분류된다.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홍보효과가 중점인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유도를 위해 사용되므로 시각전달의 보조적 수단이 되고⁴²⁾, 미술작품은 광고 속에서 고급문화, 최상의 기술과 절대적인 가치의 징표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⁴³⁾.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은 광고 기획을 완전히

39) 박선주 외(2007),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대전: 대경, p.8.

40) 김유라(2011), '드로잉 기법에 의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재질감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41) 김혜은(2002), '고구려 벽화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 핸드 니들 편칭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42) 임미라(2007), 전계서, p.76.

소화하고, 작품에 강한 개성을 주며 아이디어와 표현기술이 일치하여야 한다⁴⁴). 오늘날의 대중 시각 매체는 자본에 의해 다량 복제됨으로 기능적인 지배뿐만이 아닌 대중들의 미적 만족과 매혹을 느끼게 해주는 구성방식으로 감성적인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⁴⁵). 예술성이 강한 일러스트레이션은 개인의 작품이나 디자인 과정을 위한 기록 용도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메이크업, 헤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사전 연출과 계획성을 가진 형태와 개인의 예술성을 표출한 작품성을 가진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성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해야하는 대상의 소재와 분위기에 따라 도구와 기법이 응용되고, 실제로 실현되기 전 일러스트레이션 과정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새 트렌드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업성 일러스트레이션보다 회화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작가의 개성과 예술적 감성이 자유롭게 표출된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콜라주 기법, 오브제 기법과 같은 입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대중과 소통하며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동반하고 있으며, 대중과 예술을 소통시키는 매개체로 뛰어난 설득력과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⁴⁶). 과거 일러스트레이션은 텍스트의 의미 전달에 도움을 주는 부제적인 존재였지만, 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창적인 시각적 예술로 작가의 개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보여 지고 있다⁴⁷).

43) 배빈아(2011), '국내 광고의 순수회화 활용사례', 한국과학예술포럼 학술지 8(1), p.106.

44) 김옥재(2013), '인쇄매체 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동양화 용묵법(用墨法) 활용에 따른 기호학적 접근의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45) 성광숙(2000),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업적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를 중심으로', 복식 학술지 50(7), p.174.

46) 김지은(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p.12.

47) 배찬우(2013), '조현실주의 경향의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1)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 시각화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메이크업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하여 자유로운 감성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대중예술로써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실적 사진보다 효과가 크며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세계의 표현이 가능하고⁴⁸⁾, 인체를 대상으로 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시각화한 새로운 예술 분야이다⁴⁹⁾.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여러 가지 뷰티 디자인과 관련된 미적 표현을 나타내는 작업이므로 뷰티의 본질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게 표현되어 져야한다⁵⁰⁾. 한 시대를 풍미한 헤어, 메이크업 트렌드는 모두 사회적·경제적 시대상황, 대중의 가치관과 심리 등 종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다⁵¹⁾. 트렌드와 메이크업의 발달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형태 발전에 큰 영향이 되고, 참신한 디자인의 구성과 함께 예술적 조형성을 가지고 메이크업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다⁵²⁾.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와 같은 미용분야의 디자인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하나의 분야로 변모되었다. 인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미용의 다양한 요소들이 환상적인 예술작품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 회화작품의 예술성과 트렌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적 트렌드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므로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한 작품은 미래에 과거를 기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미래

48) 이은주(2005), '일러스트레이션을 응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표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49) 유대혁 외 (2010), '픽셀이미지를 활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렐 페인터를 중심으로', 뷰티산업연구 학술지 4(2), p.33.

50) 이상봉(200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4(1), p.11.

51) 강연진(2008), '대중문화의 Beauty Icon 연구 - 2000년대 국내뷰티아이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p.19.

52) 한지수(2013), 전계서, p.10.

트렌드 방향에 반영되기도 한다.

작가의 의도를 메이크업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경험과 내면세계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 과거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최대한 실제와 같아 보이도록 묘사가 중시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독창적이고 과감한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을 표현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자 뷰티 분야 중 회화적인 예술형태를 나타내며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뷰티 일러스트레이터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감각적인 시야와 참신한 표현방법을 가지고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투영하여 자유로운 창작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선 구조적인 골격의 형태를 이해한 인물 표현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얼굴을 비례감 있게 변형하고, 회화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자유로이 활용 가능해야 평면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응용되는 회화적인 구성과 표현방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2)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주제를 가진 메이크업을 다양한 회화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탄탄한 인물의 구성과 표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 얼굴은 신체 중 감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이므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얼굴 표정은 등장인물의 기분, 성향, 직업, 나이, 성별 등을 묘사하는데 있어 의상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⁵³⁾ 특징적인 표정을 부각시키면 더욱 생동감 있는 작품이 된다. 메이크업의 주제에 어울리는 인종이나 표정, 포즈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을 시작한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구성의 첫 단계는 전체적인 작품 구성에 있어 중심인물을 바탕으로 메이크업을 나타내는가와 환상적인 요소들을 추가하여 중심인물을

53) 탄 하우스, 최인려 외 역(2010), 'Character costume figure drawing by Tan Huaixiang', 서울: 예림, p.86.

극적으로 나타내느냐를 정해야 한다. 인물의 중시와 다른 요소들이 추가 여부는 작품의 여백을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로 중심인물만을 강조하면 상징적인 인물 표현에 집중할 수 있고, 환상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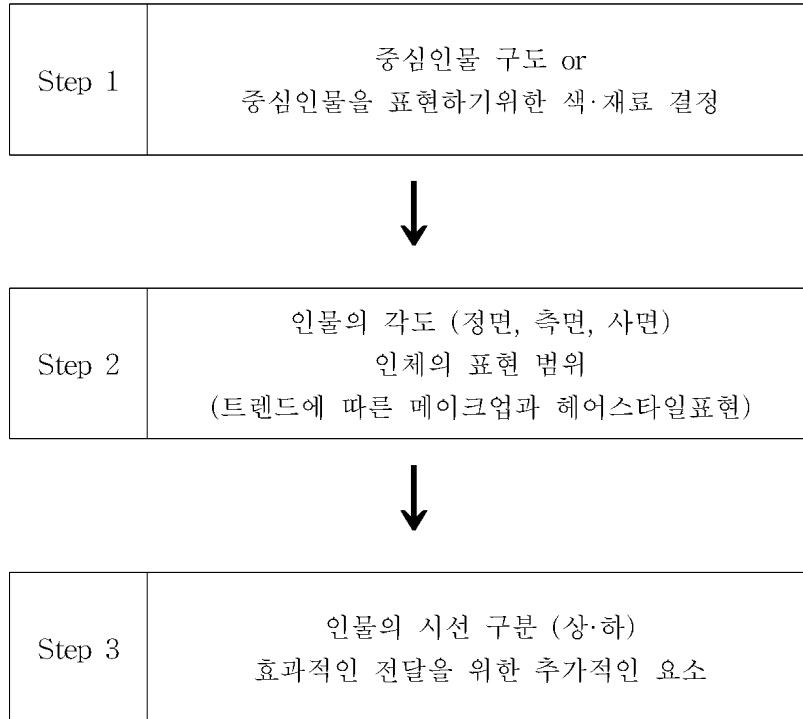
전체적인 구성이 결정되면 더욱 자세한 인물구성이 이루어져야하며, 구성인물 구도는 정면, 측면, 사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체를 표현하는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정면은 인물과 보는 이가 마주보고 있는 구도로 눈, 코, 입의 비율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 형태이며, 측면은 얼굴의 한 쪽 면을 그리는 것으로 얼굴의 옆선이 강조된다. 사면은 정면과 측면의 중간 각도로 얼굴의 눈, 코, 입이 모두 보이지만 정면과 달리 눈, 코, 입에 원근법이 적용되어 양 쪽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얼굴 전체의 구도가 정해지면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상·하로 구분하여 인물의 시선을 구분하여 인물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가 적용되어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정면구도는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고, 시선 또한 정면일 경우, 작품 속의 인물과 보는 이가 직접적인 교감을 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 측면으로 구성된 메이크업은 얼굴의 한 방향만 보이므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얼굴과 목 선, 헤어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고, 독특하고 독립적인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사면은 메이크업 광고에 많이 응용되는 구도로 정면이나 측면보다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구도로 보인다. 인물 전체의 각도와 시선은 인물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시선이 위로 가 있을 경우, 강렬하고 힘 있는 인물로 보이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물 혹은 도도해 보이는 인물로 나타난다. 눈을 감은 인물은 작품 속 인물의 감정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전달된다. 인물의 눈, 코, 입은 위에서 언급한 구도와 시선에 따라 형태와 비율이 다르게 묘사 되어야 하고 적절한 빛을 활용하여 인물의 피부와 이목구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인물표현이 중시되는 작업인 만큼 전체적인 구성이 자연스럽게 조합되어야 인물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방법에 관한 순서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표 1>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방법 순서



(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법은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에 따른 효과에 대한 것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미술재료들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그려나가는 방법과 컴퓨터 작업으로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는 방법,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방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술재료를 사용한 수작업 일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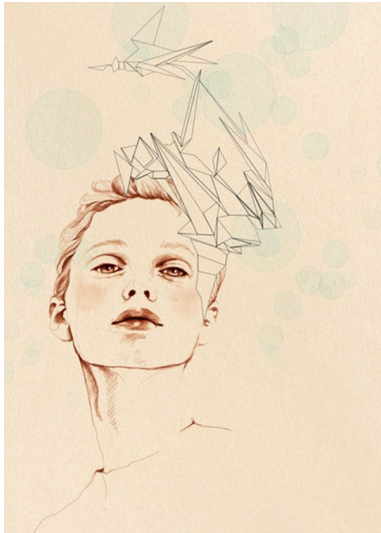
트는 컴퓨터 작업보다 표현방법에 한계는 있지만 정적인 분위기와 부드러운 작품을 나타 낼 수 있고, 드로잉 작업 후에 컴퓨터로 합성이 가능하여 깔끔한 점, 선, 면을 나타낼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후반작업은 그림을 스캔하여 그래픽 표현을 더하는 방식으로 원래 실현 할 수 없었던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것이다⁵⁴⁾. 컴퓨터 작업은 밀도 있는 작품 완성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단순한 캐릭터 작업에서부터 극 사실 묘사까지 가능하며 표현 범위가 매우 넓다⁵⁵⁾. 콜라주 기법은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손으로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물질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무한히 제공하며⁵⁶⁾ 사진과 같은 물체를 붙이는 방법으로 컴퓨터 작업처럼 선명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더할 수 있다.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 콜라주 기법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작가 의도의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표현영역이 넓어지며 부족한 부분을 컴퓨터 효과나 사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수작업과 컴퓨터 작업이 합쳐진 형태의 작품으로 작가가 의도와 내면세계를 적절한 표현방법을 통해 응용하여 표현하였고, <그림 14>는 수작업과 컴퓨터작업, 콜라주 기법을 더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며, <그림 15>는 수채화로 구성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재료와 방법으로 뷰티일러스트레이션의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다.

54) 약원(2012),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초현실 패션사진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55) 강신국(2000),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6) 임미연(2009),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콜라주 표현기법에 관한 분석',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5(1), p.85.



<그림 12>Sandra Suy의 작품
 (<http://lovelyartitude.com/2010/03/31/sandra-suy-marvelous-fashion-illustration/> 2013.10.23.)



<그림 13>Coco Pit의 작품
 (<http://www.dzineblog360.com/2010/12/showcase-of-top-10-attractive-fashion-illustrations/> 2013.10.23.)



<그림 14>Peggy wolf의 작품
 (<http://el.ozonweb.com/art/peggy-wolf-fashion-illustration> 2013.10.23.)



<그림 15>Peggy wolf의 작품
 (<http://el.ozonweb.com/art/peggy-wolf-fashion-illustration> 2013.10.23.)

2. 피카소

1) 피카소 회화의 형성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스페인의 남부지방 안달루시아(Andalucía)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활동적인 성향이 강했던 피카소는 이른 미술활동을 통해 작품세계를 꾸준히 이어온 작가이며, 피카소의 독립적인 성향은 전형적인 안달루시아인의 특징이자 열정적인 미술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안에서도 무시되었던 지방으로 훗날 피카소가 바르셀로나와 파리에서 미술활동을 할 때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담한 작품을 선보이는 동기가 되었다. 피카소는 프랑스에서 보수와 혁명이 교차하는 이질적 풍토를 경험했고, 스페인의 정통과 기질을 물려받아 그의 작품은 현실에서의 집념과 스페인의 과감성이 나타난다⁵⁷⁾. 피카소의 미술 입문의 가장 큰 영향은 아버지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José Ruiz Blasco)로 부터이다⁵⁸⁾. 그는 젊은 시절 화가이자 미술교사였으나 부유함과 유명세를 이루지는 못하였고, 일찍부터 피카소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차려 피카소를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미술활동의 꿈을 성취하고자 피카소를 1897년 유명한 미술학교인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다⁵⁹⁾. 화실을 빌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피카소의 미술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고 이로써 피카소는 탄탄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림 14> ‘첫 영성체’(La Primera Comunion, 1896)는 피카소의 첫 유화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카소의 여동생이 성체를 받는 순간을 그린 것이다⁶⁰⁾. 당시 피카소의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와 보이는 그대로의 색감을 묘사하였고, 피카소의 나이 15세에 그린 그림

57) 최나영 외(2001), ‘피카소의 무대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 Parade를 중심으로’, 복식 51(4), p.130.

58) 김종표(1982), ‘립체주의 형태의 분석적 연구 : PICASSO의 생애와 그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4.

59) 위수연(2006), ‘피카소(Picasso)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꿈의 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복식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p.7.

60) 마틸데 바티스티니, 박나래 역(2009), ‘피카소 현대 미술의 혁명’, 서울: 마로니에 북스, p.9.

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본격적으로 미술에 입문하였지만 피카소는 미술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미술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신문화들을 접하면서 더욱 개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파리에서 당시 미술품을 거래하는 일을 하던 리오 스타인(Leo Stein)과 거트루트 스타인(Gertrude Stein) 남매의 소개로 앙리마티스(Henri Matisse)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피카소의 미술활동에 강한 경쟁심을 일으키는 유일한 화가로 피카소가 생각해오던 이상의 작품을 파격적·진보적으로 선보이고 있었다.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와의 관계는 피카소의 노년까지 이어졌고, 피카소의 회화에 자극제가 되어 회화적 시도에 큰 영향이 되었다. 피카소는 고전적인 성향을 벗어나 진보적인 작품을 추구하였고, 새로운 미술양식의 창조를 중시하였다. 피카소는 회화 작품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본능적으로 잠재된 상징적 작품 소재를 중심으로 의도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색과 형태를 과장하거나 단순화하였다⁶¹⁾.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고집은 훗날 20세기 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5> ‘아비뇰의 처녀들’ (Les Femmes d'Alger)은 기존의 회화양식을 벗어난 독창적인 피카소의 스타일이 들어난 작품이며 인체 왜곡의 모습은 입체파를 알리는 실험적인 작업으로 이후 하나의 양식이 되었다⁶²⁾. ‘아비뇰의 처녀들’이 20세기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간처리와 인간의 감정 및 심리상태의 표현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⁶³⁾. 발표 당시에는 주변 지인과 대중에게 지나치게 진보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고전적인 표현기법을 탈피하였고, 참신한 조형 효과를 위해 사회의 풍속이나 윤리를 기록하지 않은 조형적인 실험을 보여줬다⁶⁴⁾. 피카소는 당시의 평가를 개의치 않고 예리하고 감각적인 회화적

61) 이민혜(2010), ‘중학교 미술수업에서 Pablo Picasso 회화에 나타난 상징성을 통한 그리기 지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9.

62) 최정선(2000), ‘피카소의 1930년 <십자가 책형 Crucifixion>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4, p.160.

63) 노희선(2004),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시도를 하여 다양한 추상적인 미술양식을 선보였다. 피카소의 추상화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기법상의 의미보다 ‘새로운 실재’에 대한 창조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⁶⁵⁾. ‘아비뇽의 처녀들’이 후, 피카소의 회화는 더욱 독창적으로 나타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인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를 만나게 된다.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과 콜라주 기법을 창안하면서 파격적인 회화 양식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콜라주 기법은 화가의 손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물체를 잘라 붙이는 것을 의미하며⁶⁶⁾ 다다운동(Dadaism)과 초현실주의 미술에 오브제가 재발견되어 사용되었다⁶⁷⁾. 화면에 물체가 개입되어 회화의 주 관점이던 자연사물이 일상적 물체로 비중이 옮겨지면서 예술과 일상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⁶⁸⁾. 큐비즘은 인물의 형상을 다양한 크기의 면으로 분석한 뒤 분할된 도형으로 나타내는 회화기법으로 3차원적인 이미지를 선보인 피카소의 대표적인 회화적인 타이틀이라 할 수 있다. 큐비즘과 콜라주 기법과 같은 기하학적인 추상미술은 근대 미술을 형성하고 발전시켰으며 현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⁶⁹⁾.

피카소는 큐비즘 이후, 초현실주의를 통하여 보다 자유로운 회화형태와 폭넓은 색채를 활용한 작품을 남겼으며, 인물화, 풍경화, 판화, 포스터, 책 표지, 조소, 도자기공예 등 다방면의 미술 작품을 남겼다. 꾸준한 작품 생산을 이어오던 피카소는 말년에 접어들며 자신의 미술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직설적으로 된 피카소는 본인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

64) 윤익영(2000), ‘<아비뇽의 아가씨들> 양식의 기원과 탄생’, 미술사학 학술지 14, p.142.
 65) 이명곤(2011), ‘근대 프랑스 미술문화에 나타나는 “자유 의 이념” -세잔, 고흐, 피카소를 중심으로’, 유럽사회문화 7, p.141.
 66) 최유리(2005), ‘피카소의 오브제 미술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19.
 67)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 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p.40.
 68) 박상지(2008),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현대 미술의 오브제 특성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전후 미술 사조를 중심으로’, p.9.
 69) 이아영 (2006), ‘조형요소를 이용한 현대 장신구 연구 - 점, 선, 면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p.5.

과정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즈(Diego Velázquez, 1599-1660)와 에드워드 마네(Edouard Manet, 1832-1883)의 작품을 재해석하였다. 벨라스케즈는 안정적인 원근감과 독특한 작가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회화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로 피카소가 어린 시절 우러러보던 작가였다. <그림 18>⁷⁰⁾은 벨라스케즈의 ‘시녀들 1’(Las Meninas, 1656) 이고, <그림 19> ‘시녀들 2’(Las Meninas, 1957)으로 원근감 없는 구도와 추상적인 인물표현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20>⁷¹⁾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식사 1’ (Le Déjeuner sur L’Herbe, 1863)은 <그림 21>⁷²⁾ 피카소의 ‘풀밭위의 점심식사 2’ (Lunch on the Grass, 1960) 원작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정반대의 작품으로 여인의 표현이 매우 거칠게 표현되어있다. 피카소는 두 작가의 작품을 재창조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부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였고, 자화상을 통해 불안하고 거친 심리를 표출하게 된다.

처음 스페인에서 파리로 간 당시 그린 <그림 22> ‘코트를 입은 피카소의 자화상’ (Auto portrait, 1901)은 단조로운 표현으로 담담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되었고, <그림 23> ‘자화상 1’ (Self-portrait facing Death, 1972)는 죽음을 앞둔 피카소가 두려움과 혼란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죽음을 원치 않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작품으로 피카소의 미술활동의 종점이 된 작품이다. 피카소 회화의 형성은 예리한 관점으로 대상을 관찰 후, 자신의 내면 깊숙한 심리를 이끌어내어 독창적인 작품으로 남았다.

70) Diego Velasques (1656),

(<http://www.museodelprado.es/en/the-collection/what-to-see/2-hours-in-the-museum/zoom/1/obra/the-family-of-felipe-iv-or-las-meninas/oimg/0/>)

71) Edouard Manet (1863),

http://www.musee-orsay.fr/en/collections/index-of-works/resultat-collection.html?no_cache=1&zooom=1&tx_damzoom_pi1%5Bzoom%5D=0&tx_damzoom_pi1%5BxmlId%5D=000904&tx_damzoom_pi1%5Bback%5D=en%2Fcollections%2Findex-of-works%2Fresultat-collection.html%3Fno_cache%3D1%26zsz%3D9

72) Pablo Picasso (1960), <http://www.metmuseum.org/toah/works-of-art/6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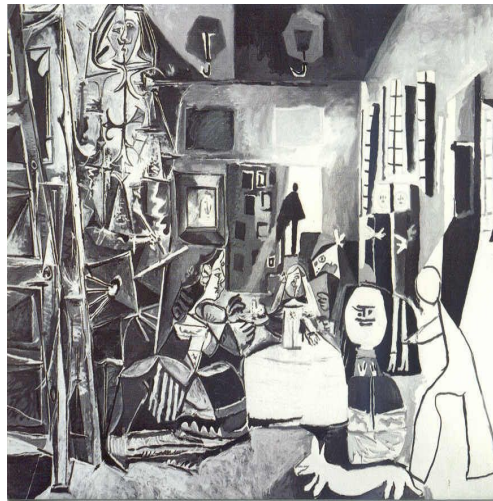
<그림 16> 첫 영성체 (1896)
 (마틸데 바티스티니, 박나래 역(2009),
 피카소 현대 미술의 혁명, p.9.)



<그림 17> 아비뇰의 처녀들 (1907)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역(2007),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p.41.)



<그림 18> 시녀들 1
 Diego Velasques 원작 (1656)
 (<http://www.museodelprado.es> 2013.11.03.)



<그림 19> 시녀들 2
 Pablo Picasso 모작 (1957)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역(2007),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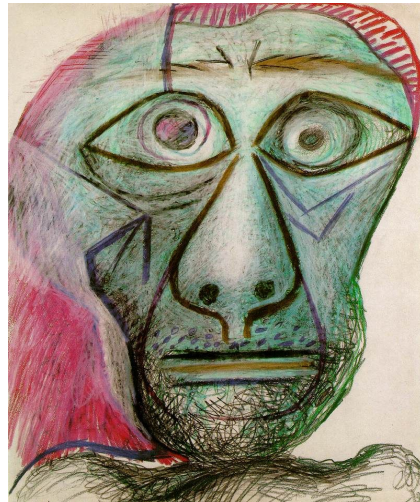
<그림 20> 폴발위의 점심식사 1
Edouard Manet 원작 (1863)
(<http://www.musee-orsay.fr/en/> 2013.11.03.)



<그림 21> 폴발위의 점심식사 2
Pablo Picasso 모작 (1960)
(<http://www.musee-picasso.kr/>
2013.11.03.)



<그림 22> 코트를 입은 피카소의
자화상 (1901)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p.21.)



<그림 23> 자화상 (1972)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411.)

2) 피카소 회화분류 및 특성

(1) 초기(Early Period, 1881-1900)

피카소 초기는 그의 예술적인 무한한 가능성이 남들보다 빠른 습득과 즉흥적인 감각이 두각을 보인 시기로, 초기의 분류는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그린 작품들과 파리로 이동 후, 피카소의 절친했던 친구 카시헤마스(Carlos Casagemas, 1881-1901)의 죽음 이전까지로 나누었다.

피카소의 초기작품 속에서는 본인의 가족을 많이 그렸고, 빛에 따른 명암묘사와 인물 표현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12살 때 토르소와 같은 인체의 구도를 안정적으로 그려 낼 수 있던 피카소는 배경 작은 부분까지 관찰하여 그려 넣는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림 24> ‘과학과 자비’(Science et charité, 1897)는 창문에 흘러 있는 페인트 자국을 놓치지 않고 그렸을 만큼 섬세한 관찰력이 보이며, 작품속의 의사는 아버지, 누워 있는 여인은 여동생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작품은 청색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차가운 긴장감이 나타난 작품이다⁷³⁾. <그림 25> ‘무표정한’(An expressionless face, 1901)은 점묘법으로 화려한 여인의 덩덤한 모습을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이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피카소의 붓 터치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 되어있으나 1900년이 시작될 쯤 부터는 이전보다 힘이 들어가 더 생동감 있는 질감으로 표현되었다. 피카소는 미술활동을 시작한 후, 본인보다 높은 수준의 작품들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였고, 다양한 작가들의 걸작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작품을 그렸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로의 이동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어 자유라는 새로운 감정이 거침없이 표현되었고, 자유로운 인물들이 작품 대상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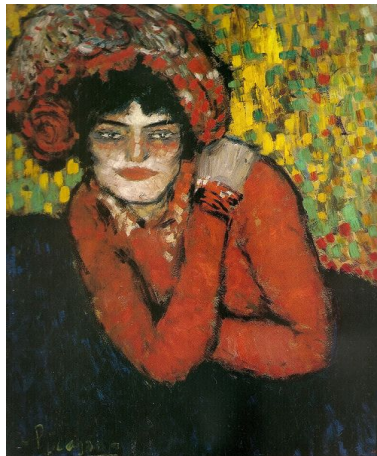
1901년 그린 ‘난쟁이 무희’ (그림 1)는 무희의 모습을 화려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서커스단이나 무희 등 인물들의 화려한 의상, 짙은 화장의 여인들을 볼

73) 박노은(2010), ‘피카소의 회화에 나타난 색채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4(2), p.44.

수 있다. 피카소는 1923년과 1925년 사이에 무희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작품을 그렸으며⁷⁴⁾, 이전에 보았던 여성의 연약한 모습과 반대로 강한 인상의 여인으로 묘사되어 거친 붓 터치와 배경, 의상을 점묘법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낀 피카소의 작품은 점차 화려해져 원색을 사용하게 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회화방식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피카소의 파리생활은 불어가 능통하지 않던 그에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열정을 심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처음 접하는 시기였으며, 자유로운 회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그림 24> 과학과 자비 (1897)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역(2007),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p.15.)



<그림 25> 무표정한 (1901)
(하요 뒤호팅, 엄미경 역(2009),
Pablo Picasso, p.37.)

(2) 청색 시기(Blue Period, 1901-1904)

청색 시기는 피카소의 친구 카시헤마스(Carlos Casagemas)의 죽음 이 후, 심리적으로 우울했던 그가 청색 위주의 작품들을 선보인 시기이며 억누를 수 없는 불안, 운명에 반하는 인간과 자신의 드라마를 담고 있다⁷⁵⁾. 청색을 사용

74) 백정숙(2002), '파블로 피카소의 미술세계가 무대미술에 미친 영향 : 춤이 있는 무대미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생활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p.18.

75) 오오근(2003), '피카소의 예술과 Printmaking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

하여 창백하고, 슬픔이 가득 찬 본인의 심리를 작품에 투영하였고, 이 시기 피카소는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고 다닌 의상까지 청색으로 입을 만큼 ‘청색이야말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색’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⁷⁶⁾. <그림 26> ‘관 속의 카시헤마스’(Portrait of Carlos Casagemas, 1901)를 통해 친구를 추모하는 작품을 남기며 이 작품으로 인해 청색 시기가 시작되었다. 청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적인 면과 비유적인 면을 보이며, 다가올 청색시기를 예언하였다⁷⁷⁾. 작품 속 촛불은 세상의 밝은 빛을 의미하지만 촛불 아래 차갑고 핏기 없는 인물표현으로 슬픔을 극대화하였다. 카시헤마스가 죽은 후, 그를 거절했던 그 여인과 연인이 된 피카소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비통함과 죄책감을 느꼈고,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울함을 화폭에 담았다. 청색 시기의 특징으로 그려진 인물들의 특징은 움크린 형태로 시선이 힘없이 아래를 떨구고 있고, 무표정한 어두운 얼굴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27> ‘머리카락으로 헬멧을 쓴 여인’(Woman with a helmet of hair, 1904)은 창백한 여인의 모습이 단조롭게 표현된 작품이며 청색을 사용하여 슬픔을 표현하였다. <그림 28> ‘앉아있는 할리퀸’(Perched Harlequin, 1901)은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긴 할리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화려한 모습 뒤 초라한 할리퀸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그림 29> ‘비극’(The Tragedy, 1903)은 연약한 외형을 가진 인물 표현으로 슬픔에 가득 찬 소외된 계층의 고달픔을 그렸다. 피카소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청색으로 채화하였다⁷⁸⁾. 청색은 본래 한색에 속하며 지적인 분위기를 갖는 색이지만 이 시기 피카소에겐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비극적인 다양한 감성들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⁷⁹⁾. 청색 시기의 피카소 작품에선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4.

76) 이희진(2005), ‘블루 컬러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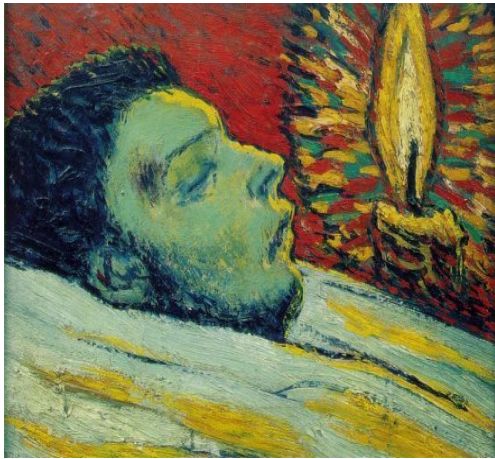
77) 류중희(1998),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에 나타난 청색의 상징적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8.

78) 오현숙(2006), ‘피카소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채심리와 색채 치료적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학술지 13(2), p.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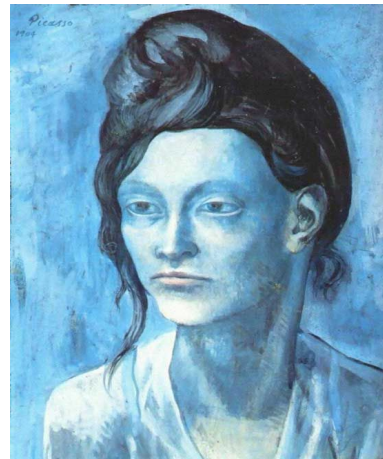
79) 김남희(2002), ‘피카소의 색채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

심적 고뇌가 지배적인 동시에 사랑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여러 누드작품을 그렸는데 슬프고 우울한 자신을 향한 위로와 친구의 여인을 사랑한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린 것이다. 피카소는 힘들고 지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의 인생의 슬픔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이며, 무언의 무게감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창백하고, 어두운 얼굴표정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강한 내면의 의지가 전달된다. 피카소에게 청색 시기는 내면 깊숙한 슬픔, 비통함, 고통을 의미하며, 청색을 정해 한 계열의 색으로만 작품들을 처음으로 구성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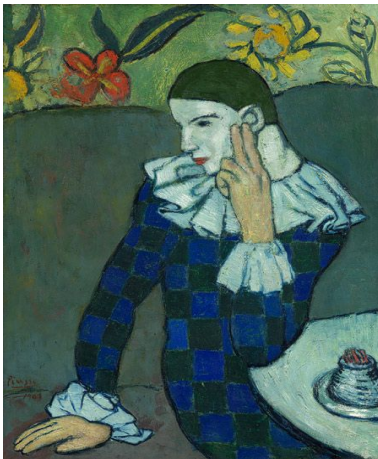
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그림 26> 관 속의 카시헤마스 (1901)
 (마틸데 바티스티니, 박나래 역(2009),
 피카소 현대 미술의 혁명, p.26.)



<그림 27> 머리카락으로 만든 헬멧을
 쓴 여인 (1904)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64.)



<그림 28> 앉아있는 할리퀸 (1901)
 ([http://www.metmuseum.org/toah/wo
 rks-of-art/60.87](http://www.metmuseum.org/toah/works-of-art/60.87) 2013.11.09.)



<그림 29> 비극 (1903)
 (피에르 텍스, 정진국 역(1991),
 PICASSO, p.13.)

(3) 장미 시기(Rose Period, 1904-1907)

장미 시기는 분위기가 어두웠던 청색시기에 비해 따뜻한 색조인 붉은 색과 황토색을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가 밝고 명료해진 시기이다⁸⁰⁾. 장밋빛을 주로 사용하여 장미 시기라 불리며 아프리카의 영향으로 외형묘사를 보인 시기이기도 하여 아프리카 시기(African Period)로 구분되기도 한다. 피카소가 암울한 생활에서 점차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 표현한 시기이자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학적으로 변하였고, 인간의 존재 그 하나를 중점으로 바라보면서 변화된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은 붉은 빛으로 혈색을 찾고 마르고 가냘팠던 인간의 형상도 굴곡이 생겼으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구도가 풍성해졌다. 청색시기가 비극적·염세적 이미지를 보여준 반면 장미 시기는 감성적·시적 분위기를 볼 수 있다⁸¹⁾. <그림 30> ‘곡예사들’(Family of saltimbanques, 1905)은 곡예사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 그려진 가족의 모습은 친밀감을 보이지만, 어두운 색조의 황량한 들판에 있는 인물들은 외로움과 몽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⁸²⁾. 피카소는 청색 시기와 달리 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고, 단장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같은 일상의 밝은 부분을 그리기 시작하여 독립적으로 고뇌하던 시기를 벗어나 다시 생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작품으로 나타난다. 피카소는 이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해부하여 다양한 누드를 그렸고, 누드를 통해 인간의 외형적인 구조를 통찰하고, 인간을 표현하는 새로운 회화양식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그림 31> 화장실 (La Toilette, 1906)은 장밋빛과 베이지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여 단장하는 여인의 모습이 온화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장미시기 후반부터는 피카소가 인간을 보는 새롭고 독특한 관점의 형성이 나타나며, 피

80) 팀 힐튼, 이영주 역(2010), 서울: 시공아트, p.78.

81) 홍복순(2001), ‘피카소의 <쌀땀방꼬 가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서양미술사 전공 석사학위논문, p.8.

82) 이용주(2000), ‘아폴리네르와 피카소 = Apollinaire et Picasso’,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학술지 2, p.143.

카소만의 독창적인 회화기법이 들어나기 시작한다. 피카소는 이 시기에 원시 부족예술의 표현력과 조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인물화를 그릴 때 큰 눈과 긴 코로 표현하여 아프리카의 조각품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아프리카의 원시주의를 표현하였다⁸³⁾. 피카소는 아프리카나 원시조각 오세아니아의 전통조각 등과 같은 원시미술품에서 ‘소박함과 진솔함’, 그리고 ‘힘찬 표현력과 원초적 생명력’과 같은 미적 탁월함을 발견하였다⁸⁴⁾. 작품이 추상적으로 변화되면서 피카소는 대상을 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확립하게 되었고, 큐비즘 발상의 시작이 된 걸작 ‘아비뇰의 처녀들’ (그림 17)을 그린다. 얼굴 이목구비, 신체는 선명한 선으로 입체적인 표현이 강조되었다. 피카소는 여러 습작을 통해 입체감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최소한의 선과 면으로 인간을 표현하는 견고함은 인상주의의 ‘순간성’에 대한 일종의 반격으로 볼 수 있다⁸⁵⁾. 아비뇰의 처녀들이 혁명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회화의 특징을 지운 두 가지 핵심요소, 즉 인간 형상을 위한 고전적 규범과 일점 원근화법의 공간적 환영주의와 결별하여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선보인 작품이기 때문이다⁸⁶⁾.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은 이 시기 혁신적인 회화기법을 창조하는 도전을 시작하였고, 점차 진화하는 피카소의 화화방식을 볼 수 있다. 초기 장미시기의 작품에선 붉은 빛깔의 색채들의 작품이 등장하며 인간의 혈색이 온화하게 돌아오게 되었고, 후기 장미 시기는 입체주의가 시작 되면서 보수적이던 회화양식을 탈피한 피카소의 새로운 경지의 작품을 볼 수 있다.

83) 남수정(2004), ‘20세기 초 미술에 나타난 아프리카 원시조각의 영향에 관한 고찰 : 마티스, 피카소, 브라쿠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9.

84) 황수현(2013), ‘아프리카 원시조각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금속 장신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p.22.

85) 하요 뒤호팅, 엄미정 역(2009), ‘Pablo Picasso’, 서울: 예경, p.44.

86) 임재훈(1990), ‘파브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에 관한 연구 : <아비뇰의 아가씨들>과 <게르니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14.



<그림 30> 폭예사들 (1905)
(피에르 벅스, 정진국 역(1991), PICASSO, p.36.)



<그림 31> La Toilette (1906)
(<http://www.albrightknox.org/collection/se-arch/piece:71/> 2013.11.09.)

(4) 큐비즘(Cubism, 1908-1915)

큐비즘은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 걸쳐 일어나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활발히 활동한 미술운동이며⁸⁷⁾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에 의해 형성되었다. 큐비즘은 입체주의를 말하며 전통적인 원근화법과 단단한 형태의 집합으로 배열하여 구성한 새로운 표현방식이며⁸⁸⁾ 20세기 초 야수파(Fauvism) 운동과 전후해서 일어나게 되었다⁸⁹⁾. 3삼차원의 정적인 개념에 시간이 부가된 4차원의 개념은 입체파를 형성했으며, 유럽회화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주의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혁명으로 지칭되고 있다⁹⁰⁾. 입체주의는 자연의 여러 형태를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 자연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회화 자체의 내적인 법칙에 충실한 구조로 전환한 추상회화이다⁹¹⁾. 입체주의의

87) 이경미(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석사학위논문, p.6.

88) 문철(2000),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입체주의적 효과에 관한 연구', 디자인 논문집 학술지.5, p.137.

89) 반미선(2004), '큐비즘의 회화를 응용한 구두디자인 연구 : 피카소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90.

90) 김승연(2009), '큐비즘적 표현을 응용한 파티션 연구 : 투시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91) 도정남(2004),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작품에 나타난 무대장치에 관한 연구', 41, p.20.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회화로 분할된 투시법이며⁹²⁾, ‘아비뇽 처녀들’ (그림 17)을 선보인 후, 당시 평가에 반감을 느낀 피카소가 고전적인 미술이론들을 불신하면서 창안한 양식이다. 피카소는 고전 양식의 탈피를 추구하였고, 자신의 견해와 동일한 브라크를 만나면서 두 작가는 함께 작품 작업을 시작하며 큐비즘과 콜라주 기법을 창안하였다. 입체주의는 과거 미술의 한계를 벗어나 현대성을 추구한 것으로 혁신적인 시도와 비평가들의 해석을 흡수하며 형성된 미술운동이며⁹³⁾, 조형구조는 기존의 양식과 판이하게 동시 발생적인 구조로 대상의 초점이 복수시점의 구조로 구성되어 자유분방함을 보였다⁹⁴⁾.

피카소와 브라크는 입체주의 작품을 꾸준히 작업하였고, 피카소는 신개념의 회화방식을 연마하기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큐비즘은 크게 분석적 큐비즘과 종합적 큐비즘으로 분류된다. 대상을 분석한 뒤, 외형을 단순화하여 도형의 형태로 그려진 것을 분석적 큐비즘이라 하고, 사물과 문자가 혼합되어 매우 추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것을 종합적 큐비즘이라 한다. <그림 32> 다니엘 헨리 칸웨일러의 초상 (Portrait of Daniel-Henry Kahnweiler, 1910)은 다양한 각도의 평면 도형으로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 33> ‘고리버들이 있는 정물’(Chair Caning, 1912)은 종합적 큐비즘 형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하학적인 이미지와 의자의 일부분을 붙여 작업한 콜라주(Collage) 작품이다. 콜라주는 일상의 비예술적인 소재를 잘라내어 붙이는 기법을 총칭하며⁹⁵⁾, 피카소의 작품 ‘고리버들이 있는 정물(그림 33)은 타원형으로 맞출로 감싼 액자 틀이 독특한 감각의 구성으로 부각시킨 작품이다. 종합적 큐비즘은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와 같은 다른 질감의 소재를 부착하

92) 박선희(2008),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 나타난 색채배색과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 뷰티학회 학술지 6(4), p.250.

93) 오병욱(2007), ‘피카소와 분석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지 55(2), p.76

94) 이춘섭(2006), 입체주의 미술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실내 디자인과의 상관성(I),(II), 진리논단 13, p.822.

95) 김동철(2003), ‘조형기법으로서의 Collage의 표현과 역할 :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논총 19(2)

는 시도를 볼 수 있고, 바이올린, 영문 문자, 악보 등을 혼합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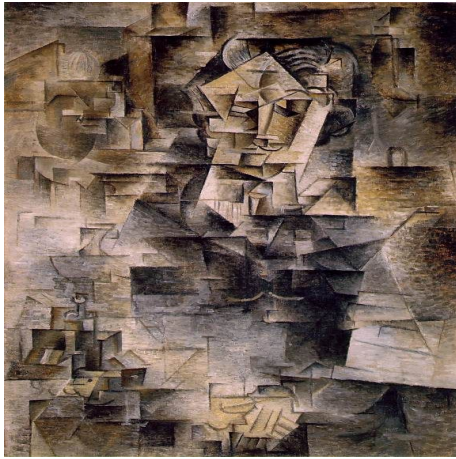
큐비즘의 특징은 뚜렷한 명암대비와 절제된 색상 표현, 그리고 추상적인 묘사와 선명한 명암대비이며 원통, 구체, 원추로 압축한 기하학적 묘사 즉, 입방체(Cube)로 축약한 원리가 특징이다⁹⁶⁾. 큐비즘 후반에는 면으로 구성되었던 명암대비가 작은 점과 같은 붓 터치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점의 형태는 사각형과,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카소는 다양한 방향을 가진 직선으로 면을 분할하여 형상하였으며, 청색과 장밋빛과 같은 일정한 색의 사용하였다. 무채색과 같은 무게감 있는 색으로 집중되어 복잡한 구도의 대상이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큐비즘 후반으로 접어들며 색상이 점차 화려해졌고, 더욱 추상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입체주의의 완성은 현대 미술에 있어 수많은 회화양식에 기초의 개념이 되었으며, 시각의 동시성의 개념으로 전통미의 형식을 배제한 동적 감각 표현의 현대미를 볼 수 있는⁹⁷⁾ 진부한 회화양식을 탈피한 아방가르드(Avant-Garde) 미술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피카소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발휘되는 대표적인 변용 시대이다⁹⁸⁾.

96) 소수만(2009), '세잔, 피카소, 스타인, 헤밍웨이: 그들 기법의 영향관계', 영어영문학 연구 35(3), p.51.

97) 김소현(2005),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 회화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98) 김지미(1990), '피카소 작품을 주제로 한 의상디자인 : 도예에 나타난 그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의상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p.6.



<그림 32> 다니엘헨리 칸웨일러의 초상
(1910)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25.)



<그림 33> 고리버들이 있는 정물 (1912)
(하요 뒤흐팅 엄미정 역(2009),
Pablo Picasso, p.47.)

(5)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1917-1924)

신고전주의는 피카소가 로마, 나폴리, 폼페이, 런던 등지를 여행한 이후에 시작되었고, 다수의 초상화를 볼 수 있으며⁹⁹⁾, 큐비즘의 혁신적인 회화방식에서 다시 고전적인 회화형태로 전환된 시기이다. 이 배경에는 피카소의 생활 환경 변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 큐비즘 시기 만나던 연인 에바(Eva Gouel, 1885-1915)가 병으로 죽게 되자 힘겨운 나날의 보내던 피카소는 친구인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의 소개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ai Pavlovich Diaghilev, 1872-1929)를 만났고, 무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다. 피카소는 무용극의 무대미술 작업을 위해 이태리로 떠나게 되었고, 로마에서 작업 중 올가(Olga Kokhlova, 1917-1935)라는 발레리나에 마음을 뺏기면서 그녀의 초상화를 여러 작품 그린다. 올가의 초상화는 정교하고 사실적이며 세밀한 묘사가 볼 수 있다. <그림 34> ‘안락의자의 올가’ (Portrait of Mme Olga, 1917)는 올가의 실제 사진을 보며 그린 작품으로 사진과 매우 흡사하

99) 황유진(1997), ‘피카소의 미술가와 모델 주제의 초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전공 석사학위논문, p.9.

게 묘사되어 있고, 아름답고 고전적으로 그려졌다. 피카소는 배경을 단순화하여 인물이 돋보이도록 표현하였는데 복잡하고 추상적이던 큐비즘과 달리 매우 안정적이며 차분한 표현이 중시되어 있다. 피카소 작품의 색감은 풍부해지고, 선 표현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의 영향으로 로마인의 이목구비를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¹⁰⁰⁾. 한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던 이전에 비해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였고, 직선 형태에서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이 보여 지고, 온화한 분위기의 작품이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5> 생각에 잠긴 올가(Portrait of Mme Olga Picasso, 1923)는 파스텔 화이며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로 올가를 표현한 작품이다. 신고전주의는 심적으로 한결 나른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피카소의 심리가 나타나며 고전적인 성향의 작품을 볼 수 있고, 고전적인 인체와 탄탄한 구성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이다¹⁰¹⁾.



<그림 34> 안락 의자의 올가 (1917)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p.66.)



<그림 35> 생각에 잠긴 올가(1923)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195.)

100)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석사학위논문, p.42.

101) 하요 뒤흐텡, 엄미정 역(2009), '전계서', p.50.

(6) 초현실주의(Surrealism, 1925-1973)

초현실주의는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을 종합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¹⁰²⁾ 피카소의 여러 회화방식 중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작품과 추상적인 작품형태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회화에서 ‘추상(Abstactio)행위’란 ‘상(像)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⁰³⁾. 피카소의 미술활동 중 가장 긴 시기이며, 가장 많은 여인들이 작품으로 남겨진 시기이다.

이태리에서 무대미술 작업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피카소는 가족을 이룬 생활의 실증이 고조되었고, 평소 바람기가 많은 피카소에게 지루한 일상은 새로운 여인과의 관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피카소의 연인들은 작품의 대상으로 이용된 후, 버려지는 최후가 반복됐지만 대부분 매우 순종적인 여인들이었다. 1925년 결국 올라와 이별한 피카소는 스페인,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¹⁰⁴⁾.

피카소는 변화가를 거닐다 마리테레즈 (Marie-Thérèse Walter, 1909-1977)를 만난다. 당시 마리테레즈의 나이는 15살로 강한 자극이 필요했던 피카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시작한 피카소는 법적인 문제와 비난을 고려해 만남을 숨겼지만 작품 속에 마리테레즈의 의미를 담아 그녀의 존재를 나타내었다. 남몰래 마리테레즈의 이니셜을 작품에 넣거나 그녀의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강렬한 작품을 그렸다. <그림 36> ‘꿈’(The dream, 1923)은 잠자고 있는 마리테레즈를 그린 작품으로 색상은 과감한 원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색상대비를 선명하게 하여 매우 화려하게 그려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피카소는 연인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표현하

102) 유혜란(2005), ‘현대미술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 연구 -초현실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15.

103) 이명곤(2011), ‘연구논문 : 푸코의 구조주의를 통한 피카소 예술의 이해’, 동서철학연구 61, p.228.

104) 박은희(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p.344.

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갈등하고 슬퍼하는 여인의 추한 모습을 과장하여 작품으로 남겼다. 1937년 작품 ‘우는 여인’ (그림 9)은 초현실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자 도라 마르(Dora Maar, 1907-1997)의 우는 모습이 심하게 일그러져 표현되어 있다¹⁰⁵⁾. 원색과 무채색을 함께 사용하여 도라 마르의 아름다운 겉모습과 내면의 슬픔을 오열하는 추한 모습으로 극대화하여 나타냈다. 초현실주의 특징은 선명한 색감과 기하학적인 형태, 원근감 없는 신체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7> 꽃과 함께 있는 자클린(Jacqueline with Flowers, 1954)는 자클린(Jacqueline Roque 1926-1986)을 그린 작품으로 인체 비율이 기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형적인 형태로 그린 피카소의 작품은 충격적으로 표현되었지만 피카소는 다른 작가들보다 독보적인 존재로서 집중되는 것을 즐겼기에 외부의 평가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림 38> ‘꽃 여인’(Lady of Flower, 1946)은 여인의 신체적인 특징인 가슴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형상이 꽃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단색의 배경으로 인물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작품속의 여인은 프랑스와즈 질로(Francoise Gilot 1921-1995)이며 앙리 마티스가 프랑스와즈 질로를 처음 만난 당시 그녀를 꽃 같은 초상화로 그리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한 피카소의 경쟁심이 계기가 된 작품이다¹⁰⁶⁾. 그녀는 바람기 많은 피카소를 먼저 떠난 유일한 여인으로 떠난 후, 피카소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카소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격렬한 분노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구도의 작품들로 표출되었다. 피카소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자클린과 함께 발로리스의 도자기공장에서 여러 석판화와 도자기 도예를 하였다. 자신의 예술을 총 결산하는 듯 생명의 모태인 흙으로부터 작품의 전 창조과정을 통해 조형언어로써 도예작품을 창조하였다¹⁰⁷⁾. 자클린은 피카소의 두 번째 부인이었고,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할 때까지 절대적인 사랑을 바친 여성이다¹⁰⁸⁾. <그림 39>

105)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서울: 한명, p.100.

106) 최승규(2004), 상계서, p.121.

107) 정유진(1982), ‘피카소의 도예작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29.

‘칸느의 아틀리에’(Atelier in Cannes, 1956)는 석판화 작품으로 피카소가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들을 함께 표현하였고, 피카소 작업실에 앉아있는 자클린의 일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피카소는 자신의 연인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을 각 여인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미술형태의 추상적인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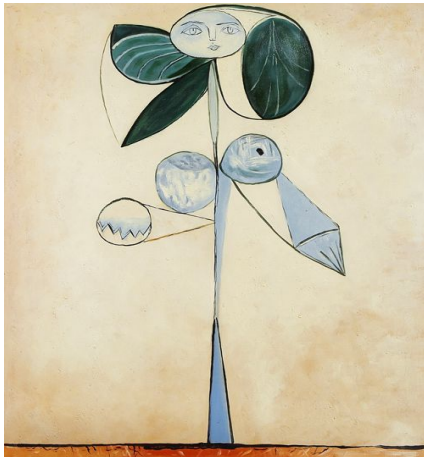
108) 김영삼(2011), ‘연극 “피카소의 여인들”의 무대 의상 제작 시스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1), p.86.



<그림 36> 꿈 (1923)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p.81.)



<그림 37> 꽃과 함께 있는 자클린
(1954)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p.142.)



<그림 38> 꽃 여인 (1946)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p.317.)



<그림 39> 칸느의 아틀리에 (1956)
(PICASSO DE MALAGA 전시대도록
(2013) p.37.)

Ⅲ. 작품 제작

1. 제작 의도 및 방법

피카소는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추상적이라거나 구체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짓말만이 존재한다. 단지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¹⁰⁹⁾ 이는 자신의 작품 예술성에 대해 무한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많은 대중예술의 영향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선보여지고 있다. 연구자는 피카소의 다양한 미술양식을 응용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의 모티브는 피카소의 독특한 회화적 요소를 응용하고, 그가 시기별로 사용한 색채를 활용하여 피카소 작품이 그려진 시기의 내적 감각을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으로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 모티브는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을 시기별로 분류한 뒤, 시기별 볼 수 있는 회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과 색채를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작품 제작을 진행하였다. 초기, 청색 시기, 장미 시기, 큐비즘, 신고전주의, 초현실주의 총 6시기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총 8가지 디자인의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시하였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위해 시기별 모티브 한 작품은 인물화 선별하였다. 시기별 피카소의 회화적인 특징의 배경을 분석한 뒤 나타나는 인물의 분위기를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타내었다.

109) 피에르 텍스. 정진국 역(1991), 전게서, p.84.

<표 2> 작품디자인 계획

작품	시기	모티브 소스	회화적 요소	색채	작품 수
작품 1	초기		점묘법 화려한 색채		1
작품 2 작품 3	청색 시기	 	푸른 색채 단조로운 구성 어두운 분위기		2
작품 4	장미 시기		베이지·장밋빛 색채 서정적인 분위기		1
작품 5	큐비즘		어두운 색채 분할된 이미지		1
작품 6	신고전 주의		고전적 분위기 선명한 명암대비		1
작품 7 작품 8	초현실 주의	 	기하학적인 묘사 간결한 표현		2

2.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1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피카소의 초기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와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회화양식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로 화려하고 과감한 표현으로 작품에 자유로움을 표출하였다. 미술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대상을 사실감 있는 표현으로 묘사가 중시되던 화풍에서 대상의 특징을 예리하게 함축한 작품을 선보였다.

피카소는 주변인을 자주 화폭에 담았는데 파리에서 머무르던 지역은 다양한 예술인과 서커스단, 무희들이 있었고,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으로 그려 화려한 외형적인 형태와 대상의 특징을 독창적인 회화 표현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피카소는 인물과 배경을 간소화하여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독특한 회화적 시각을 나타내었다. 거장들의 작품은 피카소의 회화적 시각의 형성에 풍부한 영감이 되어 초기 시기부터 탁월한 감각의 색채 구성과 개성 있는 화풍의 작품을 그리게 되었다.

- 작품 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무표정한' (그림 25)이 모티브 작품이며 화려한 색채 활용과 점묘법과 같은 질감표현을 중점으로 작업하였다. 베이지 색상의 종이에 밑그림 작업 후, 파스텔을 사용하여 피부의 윤곽을 나타내고, 색연필과 파스텔로 여인의 얼굴을 묘사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사각형의 디자인 붓으로 모티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점묘법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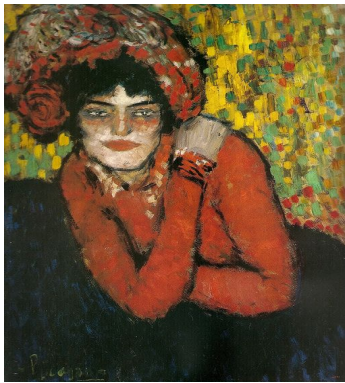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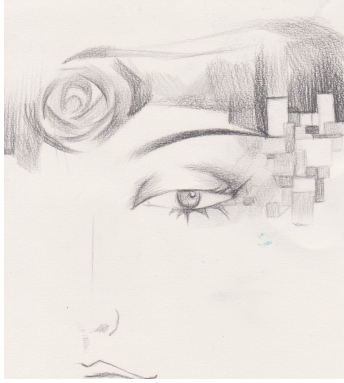
잡지를 활용하여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이를 고전적인 이미지와 혼합하여 현대적인 요소와 고전적인 요소를 하나의 인물로 표현하는 것을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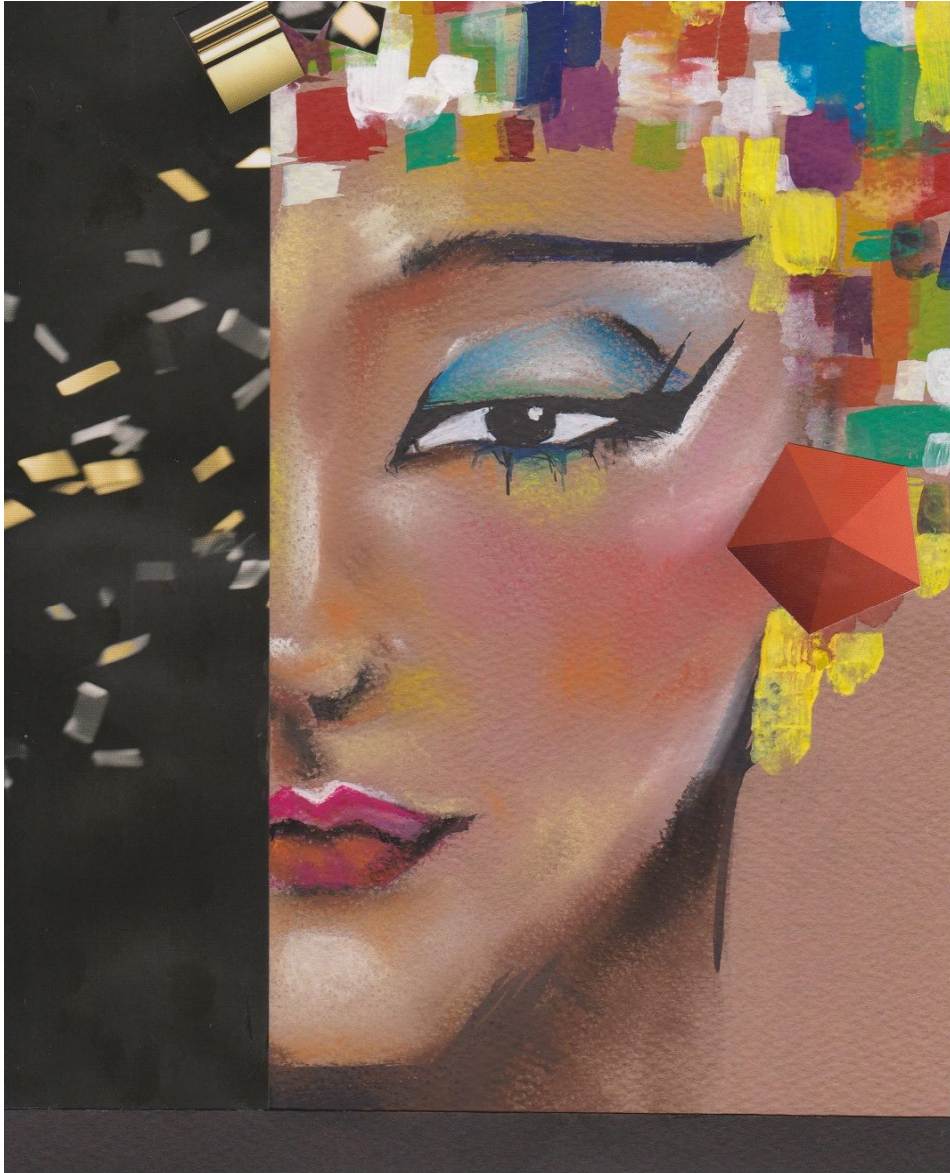
으로 진행하였다. 잡지와 컬러색지를 활용하여 여인의 귀걸이와 배경의 일부를 현대적인 콜라주 기법으로 나타내었으며 고전적인 요소는 인물과 꽃의 형상을 그려 표현하였다. 여인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모습으로 나타내어 화려한 생활 뒤에 감춰진 덩덤한 심리를 표현하였다. 여인의 시선과 가름한 눈매는 피카소의 모티브 작품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모티브 작품에서 비춰지는 배경의 질감을 응용하여 화려한 장식의 헤어네트로 표현하였다. 사각형태의 디자인 브러시로 찍어내어 헤어네트 장식의 질감 표현을 간소화하여 나타내었고, 사각 장식모양과 비슷한 잡지를 활용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부여하였다.

작품 속 인물의 메이크업은 모티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여인의 메이크업인 고전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였고, 스모키 아이라인과 과장된 속눈썹, 투톤의 입술로 작품에선 현대적인 메이크업 분위기를 더하여 표현하였다. 가늘고 진한 눈썹과 깊은 아이 홀 메이크업 형태로 푸른 색상의 아이섀도우와 자줏빛과 오렌지 색상의 립 메이크업으로 보색대비를 하여 더욱 강렬한 색상대비를 나타내었다.

<표 3> 작품 1의 구성

<p>작품 1 - An Expressionless Face</p>	
<p>작품의 재료: 색연필, 파스텔,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잡지, 컬러색지</p>	
<p>작품에 사용된 색상</p>	
	
<p>모티브 작품</p>	<p>작품 1의 스케치</p>
	



<그림 40> 작품 1 - An Expressionless Face

2) 작품 2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피카소 청색 시기는 푸른 색채를 사용하여 어둡고 쓸쓸한 내면을 표현하였고, 슬프고 힘든 인물의 지친 모습을 무표정의 얼굴로 나타내어 당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피카소의 심리를 작품에 투영하였다. 피카소에게 청색 시기는 인간의 비애, 아픔을 의미하는 색을 의미하며 무채색과 푸른 계열의 색상으로 절제된 색감 사용과 단조로운 인물로 구성하였다. 대상을 표현을 간소화하여 회화적인 기법을 화려하게 나타내기보다 전체적인 인물과 배경을 차분하고 표현하였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헬멧을 쓴 여인' (그림 27)을 모티브 작품으로 하였고, 청색시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푸른 색채를 강조하였으며 창백하고 하얀 얼굴로 냉랭한 당시의 심리를 반영한 인물로 표현하였다. 모티브 작품과 다른 표현으로 핏기 없이 야윈 인물을 선명하고 또렷한 시선을 주는 인물로 이미지를 변형하였다.

주요색이 푸른 색채이므로 푸른색 외의 색상은 최소화하여 사용하였고, 피카소의 청색이 의미하는 절제된 감정표현을 나타내었다. 주요색 외의 색상 사용은 옐로우, 화이트, 레드로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 사용하였고, 배경은 중간 크기의 붓을 사용하여 여러 색상을 번지게 하여 오로라가 퍼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오로라의 강렬함은 다양한 푸른 색채를 활용하여 색감을 도포한 후, 물로 번지게 하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한 뒤에 화이트와 레드, 옐로우 물감을 뿌려 가상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채의 번짐은 실제 오로라의 퍼짐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화이트, 레드, 옐로우 물감을 뿌려서 표현한 것은 멀리 보이는 별들


의 모양을 간소화하여 형상한 것이다. 오로라 이미지의 색상을 어둡게 하여 하얀 인물의 얼굴과 대비되어 돋보이도록 나타내었다.

인물의 모습은 창백하고 연약한 모티브 작품의 인물과 달리 메이크업을 더해 인물의 이목구비를 선명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나타내었고, 다양한 푸른 색채를 활용하여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투명한 메이크업으로 과하지 않은 여인의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하여 하이라이트와 새딩이 생략된 피부 표현으로 눈, 코, 입의 윤곽 표현을 중점으로 나타내었다.

눈의 표현은 연약하게 보이고 초점이 약한 모티브 작품에 반대되는 또렷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세필로 섬세한 속눈썹 묘사를 하였다. 아이세도우는 옅은 푸른색으로 쌍꺼풀 라인부분에 음영을 주는 정도로 표현하였고, 칼라 아이라이너로 눈매의 윤곽을 나타내었다. 입술은 투명 립글로스를 바른 후,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색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물감을 열게 나타내어 투명감을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숏 커트한 모습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수채물감을 사용하여 청명한 분위기를 여인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고전적인 여인의 형상을 가상공간의 인물로 변형하여 인물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 4> 작품 2의 구성

<p>작품 2 - A Aurora woman</p>	
<p>작품의 재료: 연필, 수채화물감</p>	
<p>작품에 사용된 색상</p>	
	
<p>모티브 작품</p>	<p>작품 2의 스케치</p>
	



<그림 41> 작품 2 - A Aurora woman

3) 작품 3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피카소의 파리생활 초기작품들의 대상이 예술을 하는 빈민층이 많은 만큼 화려함 뒤에 감춰진 빈민층의 비애를 담은 작품을 볼 수 있다. 초기보다 단순한 외형적 묘사로 간소화된 묘사가 특징이다. 면은 음영감 없이 한 색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배경과 인물, 사물간의 원근법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앉아있는 할리퀸’ (그림 28)을 모티브 작품으로 하였고, 모티브 작품 보다 차가운 이미지의 인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얼굴 부분을 강조하여 할리퀸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구성하였고, 모티브 작품의 할리퀸 표현 보다 진한 화이트 톤의 피부에 반해 자연스러운 밝은 피부 톤으로 나타내었다. 창백한 피부 톤을 현대의 자연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백지 위에 색연필로 인물의 이목구비와 피부표현 완성 후, 포스터 칼라로 배경을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인물의 피부 표현이 돋보이도록 대비효과를 주었다. 눈썹의 곁은 상향 선으로 하여 날카로운 이미지를 더하였고, 아이세도우의 표현은 가루타입의 피그먼트 사용 시 나타나는 정도의 색감과 질감 표현으로 창백한 피부 톤과 어우러지게 표현하였다.

입술 색상은 청색계열과 어울리는 보랏빛 핑크로 틴트를 사용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입술의 섬세한 묘사를 위해 아랫입술 중앙부분에 하이라이트와 입술 곁을 표현하였다.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농도는 모티브 작품과 달리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표현하여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눈, 코, 입의 묘사는 세밀하게 하여 단조로운 배경 구성에 비해 인물이 돋보이도록 나타내었다. 얼굴 묘사를 제외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최대한 간소화하여

단조로운 구성으로 진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배경과 일체된 형태로 배경 위에 헤어스타일을 겹쳐 그렸다. 포스터 칼라로 배경은 불투명하게 칠한 후, 색연필로 머릿결을 그렸다.

할리퀸의 의상은 두 가지의 레이스 천을 활용하여 목 부분의 주름장식을 포인트로 나타내었다. 레이스는 모티브작품에 있는 의상과 같이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레이스를 겹쳐 붙여 주름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5> 작품 3의 구성

<p>작품 3 - Modern Harlequin</p>	
<p>작품의 재료: 포스터칼라, 레이스, 색연필</p>	
<p>작품에 사용된 색상</p>	
	
<p>모티브 작품</p>	<p>작품 3의 스케치</p>
	



<그림 42> 작품 3 - Harlequin

4) 작품 4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장미 시기의 피카소는 서정적인 분위기와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베이지색과 장밋빛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밝아짐을 들어냈다. 피카소는 보헤미안들의 일상의 소소한 순간과 여성들이 단장하는 모습과 곡예사들의 휴식하는 모습과 같은 가정적인 순간들을 그렸다. 단조로운 외형 묘사는 부드러워졌고, 선과 면에 양감과 질감이 더해져 명암형태가 분명해졌다. 피카소는 외형 묘사를 굵고 강한 선과 함축적인 면의 분할로 간소화하여 나타내었다. 간소화 된 인물은 정확한 비율과 형태를 탈피한 형태로 창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졌다.




-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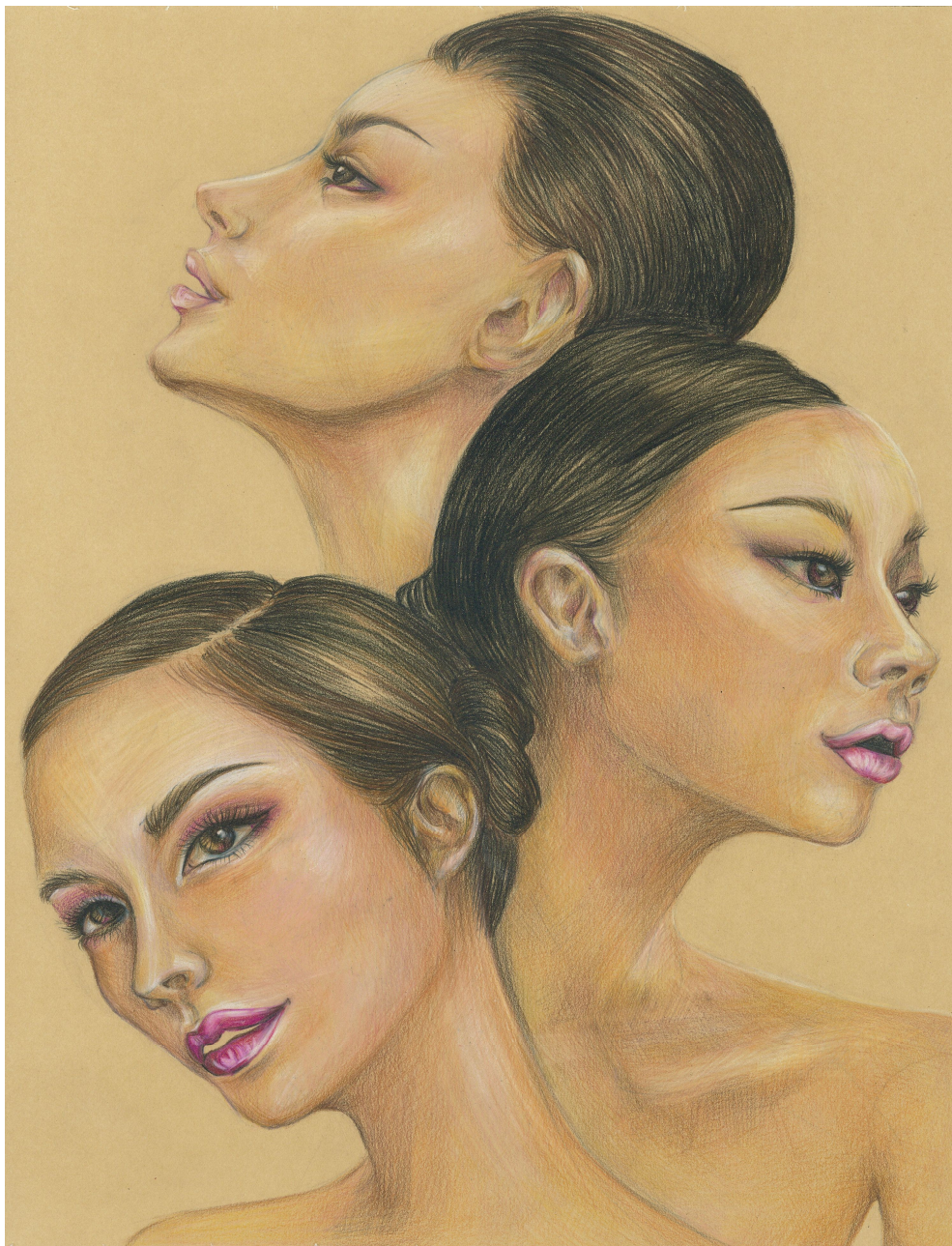
본 작품은 피카소의 'La Toilette' (그림 31)을 모티브 작품으로 한 작품으로 여성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연구자는 메이크업의 변화 과정을 메이크업의 진하기 정도로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의 정도가 다른 세 인물로 구성하였다. 세 명의 여인 모두 피부 톤은 장미 시기에 주로 사용된 베이지색과 붉은 색채를 섞어 사용하였고, 현대의 광택 있는 피부 표현이 선호되는 점을 연결하고자 하여 매끄러움을 표현하였다. 광택 질감 표현은 색연필로 음영 작업을 거친 후, 화이트 파스텔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아이 메이크업은 장미 시기의 주요색인 붉은 계열의 색상으로 옅은 브라운색상과 와인, 보랏빛 색상을 사용하였다. 메이크업이 가장 진하게 표현된 여인은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과 화이트 색상의 포인트로 눈 앞 부분까지 표현되었다. 와인색상으로 깊이감이 느껴지는 음영과 우아한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의 표현은 모티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업스타일로

피카소 작품 속 여인의 단장이 완성된 모습을 연상하여 나타내었다. 인물의 구도는 세 여인의 얼굴 각도를 다르게 하여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였다. 세 명의 인물구성은 여성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청색 시기에 비해 여러 인물을 그린 장미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표 6> 작품 4의 구성

<p>작품 4 - Shining Faces</p>	
<p>작품의 재료: 칼라색지, 색연필, 레이스, 파스텔</p>	
<p>작품에 사용된 색상</p>	
	
<p>모티브 작품</p>	<p>작품 4의 스케치</p>
	



<그림 43> 작품 4 - Shining Faces

5)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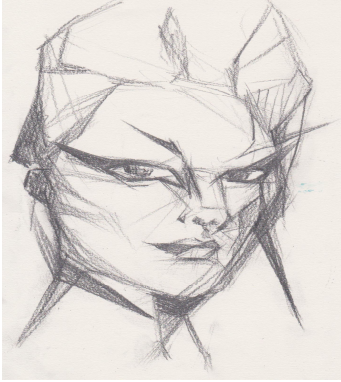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큐비즘은 점, 선, 면과 같은 회화적인 요소가 뒤섞인 형태로 대상을 쪼개어 강한 음영대비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외형묘사를 기존의 회화방식을 파괴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내어 배경과 인물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타내었다. 특정한 색상을 즐겨 활용하는 피카소는 어두운 색상을 위주로 사용하여 깊이 있는 구성을 하였다. 무채색과 브라운 색상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색을 활용한 밝고 어두움이 곧 대상의 윤곽을 나타낸다. 길이와 각도가 자유로운 직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표현하였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다니엘헨리 칸웨일러의 초상’ (그림 32)을 모티브 작품으로 하였고, 자유로운 구도의 다양한 직선을 활용하여 얼굴을 분할하여 날카로운 여인의 모습을 형상하여 큐비즘 시기의 특징인 강렬한 음영대비와 색상을 제한된 표현으로 인물을 강조하였다. 메이크업 스타일은 도시적이며 현대적인 분위기로 강한 이미지의 여성으로 표현하였고, 얼굴의 반을 나누어 메이크업한 모습과 입체적인 구성을 나타내었다. 입체적인 구성은 날카로운 유리가 깨진 모습을 연상하여 비대칭의 길이와 형태로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다. 모티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브라운과 무채색의 활용으로 아이새도우를 브라운 색상과 짙은 아이라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속눈썹의 표현을 생략하여 가름한 눈매를 강조하고, 좁은 쌍꺼풀로 동양인의 특징적인 눈매로 완성하였다. 눈썹을 연하게 나타내어 아이 메이크업이 돋보이게 하였으며, 블랙 톤의 입술로 강한 이미지를 더하였다. 헤어스타일은 과장된 부풀려진 업스타일로 나타내었으며, 세필을 사용하여 머릿결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표 7> 작품 5의 구성

작품 5 - Cubism	
작품의 재료: 포스터칼라, 마스킹 테이프	
작품에 사용된 색상	
	
모티브 작품	작품 5의 스케치
	



<그림 44> 작품 5 - Cubism

6) 작품 6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분할된 형태의 큐비즘을 통해 대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 피카소는 정확한 명암표현으로 고전적인 표현에 입체감을 더한 회화형태를 보인다. 명암 표현이 간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안정된 인물 묘사를 볼 수 있으며 인체의 곡선은 풍만해지고 부드럽게 묘사되어 평안한 분위기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큐비즘과 반대되는 고전적인 화풍이 특징으로 인물화의 가장 큰 변화는 피카소의 이목구비와 닳은 큰 눈, 코, 입의 표현으로 일자형태의 콧대와 아이 홀 라인이 짙은 눈매로 선명한 얼굴묘사의 중점을 두어 뚜렷한 이목구비의 표현과 전통적인 화풍이 나타난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생각에 잠긴 올가' (그림 35)를 모티브 한 작품으로 '생각에 잠긴 올가'는 연인 올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고전적으로 나타내었다. 차분하고 우아한 올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과 꽃을 상상하며 바라보는 이미지를 더하여 표현하였다. 선으로 테두리를 나타내어 윤곽을 강조하거나 작은 선으로 음영표현을 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 동일계열의 색상을 포스터칼라와 수채화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여 면과 같이 보이도록 나타내었다. 올가의 얼굴은 신고전주의 인물표현의 특징인 일자형태의 콧대와 짙은 눈매로 표현하였고, 화이트색상과 브라운, 오렌지계열의 아이메이크업으로 아이 홀 메이크업을 강조하였다. 구성은 인물과 환상적인 요소를 결합하였으며 올가의 우아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로 꽃을 표현하였다.

<표 8> 작품 6의 구성

작품 6 - Lover and Flowers	
작품의 재료: 칼라색지, 색연필, 포스터칼라, 수채화물감	
작품에 사용된 색상	
	
모티브 작품	작품 6의 스케치
	



<그림 45> 작품 6 - Lover and Flowers

7) 작품 7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초현실주의 대담한 회화적 요소들의 구성으로 새로운 양식을 선보인 시기이고, 초현실주의에 보여지는 충격적인 이미지, 비합리적인 내용, 꿈과 같은 초현실적 표현은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현실의 정의와 사물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관심에서 시작된 양식이다¹¹⁰⁾. 직선과 곡선, 양감과 질감의 구성을 해체하여 피카소만의 독특한 회화구성이 나타난다. 자유로운 형태와 다채로운 색상의 활용은 대상의 특징과 피카소의 심리가 반영되어 과장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와 추한 모습의 여성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자유분방한 표현력이 담긴 작품을 나타낸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꿈’ (그림 36)을 모티브 작품으로 하였고, 비취지는 원색을 파스텔 톤으로 전환시켜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인물로 표현하였다. 점, 선, 면과 같은 회화적인 요소들의 구도는 해체되어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추상적인 표현방법은 대상의 형상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었으며, 색상은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여러 색상을 과감하게 나타내었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투명감이 나타나는 인물로 표현하였고, 잡지의 활용으로 부분적인 또렷함과 색감을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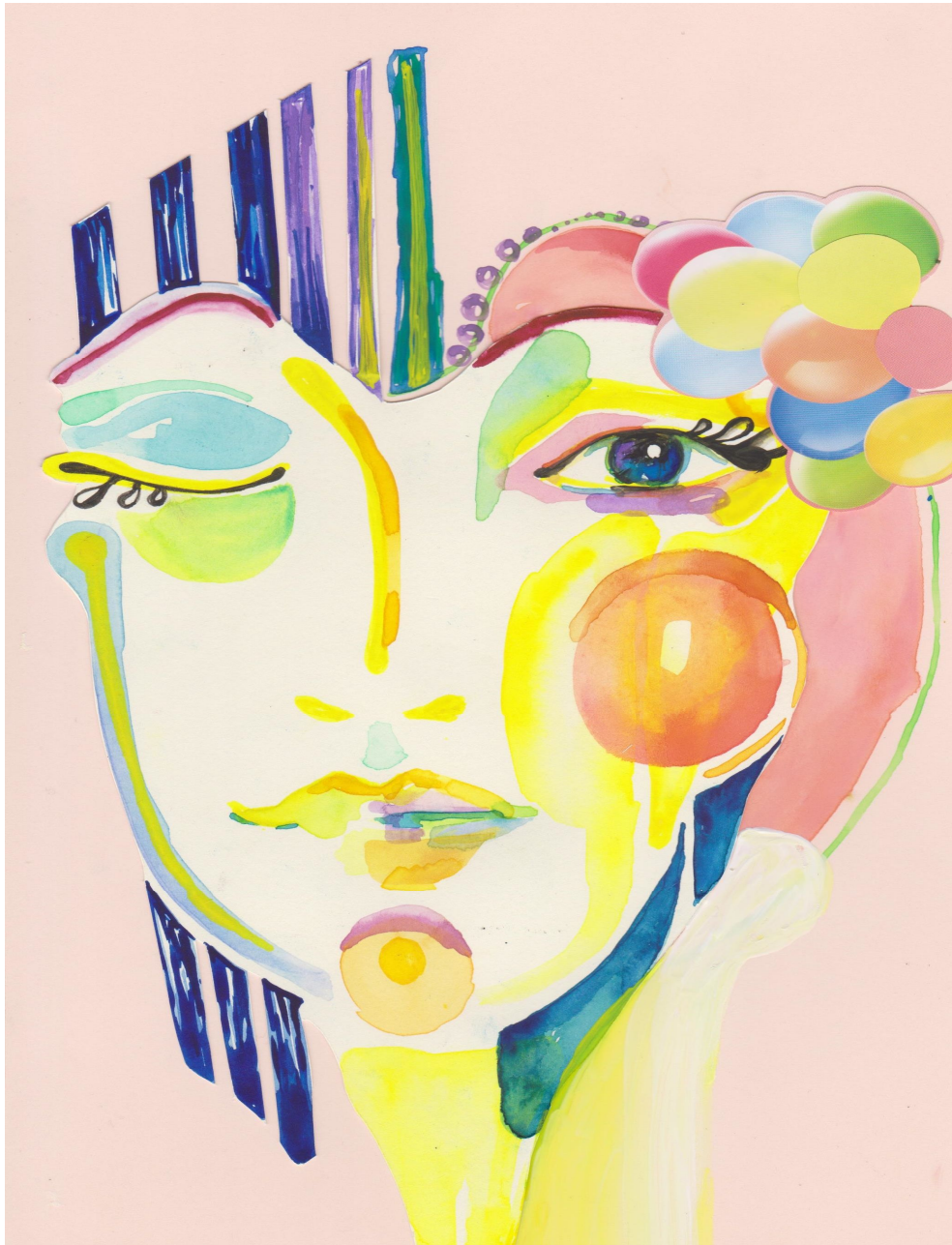
모티브 작품의 구도와 달리 정면을 향한 얼굴과 시선, 한 쪽 눈을 뜬 모습, 양 쪽이 다른 메이크업 스타일로 변형하여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스타일은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로 둥근 느낌이 강조된 형태로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파스텔 톤의 칼라색지와 어우러지게 연출하였다. 모티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목걸이의 위치는 오른쪽 눈의 윗부분으로 위치를 바꾸어 풍선의 이미지를 더하여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달콤한 꿈을 꾸는 여인의 모습을 연상하여

110) 김은수(2010), ‘초현실주의를 통한 현대 작가의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p.10.

파스텔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사용된 부드러운 곡선은, 여성이 가진 곡선미를 극대화한 피카소의 작품과 같은 의미로 나타내었으며 짙은 청색의 직선으로 피카소가 나타낸 머릿결의 흐름을 표현하여 밝은 톤의 얼굴과 대비시켰다.

<표 9> 작품 7의 구성

작품 7 - Sweet Dream	
작품의 재료: 칼라 색지, 잡지, 수채화물감	
작품에 사용된 색상	
	
모티브 작품	작품 7의 스케치
	



<그림 46> 작품 7 - Sweet Dream

8) 작품 8

-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

초현실주의는 풍부한 상상력이 그대로 화폭에 그려진 시기로 피카소 특유의 감각이 피카소의 연인들의 모습과 성향이 반영된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선명한 원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큐비즘 시기를 통해 연마된 대상을 표현하는 기하학적인 방식이 돋보인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던 피카소의 예술적 성향은 인물의 비율 공식을 파괴하여 나타내었고, 굵은 선, 직선적인 면의 분할로 간단하게 외형묘사를 하였다.

피카소의 초현실주의 작품의 특징은 복잡하게 겹쳐 표현했던 큐비즘 시기와 달리 단순화된 조형적인 구성과 신고전주의를 거쳐 다시 독창적인 표현방식으로 돌아온 피카소의 작품형태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을 선보인 피카소가 가장 오랜 시기동안 유지한 초현실주의 시기인 만큼 큐비즘 시기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피카소의 상징으로 꼽히며, 형태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피카소의 기이한 표현이 돋보인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피카소의 ‘꽃과 함께 있는 자클린 (그림 37)을 모티브로 하여 자클린의 큰 눈망울과 일직선으로 곧은 콧날, 굳게 다문 입모양으로 다부진 인상을 긴 팔과 긴 목으로 비율을 파괴하여 나타내었다. 본 작품은 피카소가 표현한 자클린의 이목구비와 흡사하게 표현하였고, 모티브 작품에서 사용된 색상의 위치를 변형하여 잡지를 활용하여 콜라주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배경색과 같은 청색과 꽃 모양을 헤어스타일에 접목시켜 표현하였고, 의상에 그려진 나비문양을 콜라주와 그림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의 색상은 붉은 색상으로 모티브 작품 배경 일부의 색상을 응용하였다. 눈망울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오려 붙여 반짝이는 형상과 큰 눈망울을 강조하였다.

의상의 표현은 현대적인 의상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콜라주로 나타내었다.
배경은 의상의 블랙 톤과 통일하여 화려한 색상으로 구성된 얼굴과 헤어스타
일에 비해 단순화하여 완성하였다.

<표 10> 작품 8의 구성

<p>작품 8 - Lady of My Last Fantasy</p>	
<p>작품의 재료: 잡지, 포스터칼라, 마스킹 테이프, 임시고정용 스프레이</p>	
<p>작품에 사용된 색상</p>	
	
<p>모티브 작품</p>	<p>작품 8의 스케치</p>
	



<그림 47> 작품 8 - Lady of My Last Fantasy

IV. 결론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예술과 미용분야에 있어 새로운 창작성을 나타내는 미적예술의 한 장르이나 예술적인 가치보다 계획성을 중시하기 위해 이루어져 대중적인 예술성을 겸비하지 못하였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활발한 표현방법을 위해선 피카소의 창의적인 미술양식과 같은 작품성이 주된 미술작품을 응용한 실험적인 작품 제시가 필요하다. 피카소의 회화형태를 알아본 결과 그는 전통적인 예술사조의 개념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회화방식을 재발견하였고, 개성 있는 인물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피카소의 대담한 미술양식은 메이크업이 실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여 추상적인 이미지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이미지 창출은 곧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형성되어 대중예술의 폭 넓은 영역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영향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양식을 응용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고, 뷰티 메이크업의 자유성과 예술성을 지닌 작품을 통해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표현 방법의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피카소 회화작품의 색채와 회화적 방식을 분석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전개하였고, 피카소의 회화방식과 색채 응용은 시기별 특징별로 관련된 이미지를 부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창작함으로써 회화적인 예술성과 메이크업 요소들을 접목하여 표현하였다. 세부적인 모티브 작품의 선정은 피카소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여성의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뷰티 트렌드를 작품으로 디자인하였고, 종합적인 피카소의 회화적 특성과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다음과 같다.

피카소의 독창적인 회화적 특징과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의적인 특성을 표현하여 총 8개의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1은 초기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점묘법과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피카소가 표현했던 무희의 모습에서 얼굴을 강조하여 다채롭고 풍부한 색감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고전적인 메이크업과 점묘법을 응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 헤어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작품 2, 3은 청색 시기의 특징인 푸른 색채를 주요색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이 반영된 작품으로 단조로운 구성과 어두운 분위기를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는 수채화 물감으로 신비롭게 퍼지는 오로라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수채물감의 투명감을 강조하여 청초한 메이크업을 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투명함을 표현하기 위해 진한 메이크업을 나타내기 보다 옅은 메이크업으로 윤기 나는 피부와 입술로 표현하였다. 작품 3은 고전적인 의상을 입은 할리퀸의 모습을 레이스를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청색의 차가운 분위기와 여인의 시선을 정면으로 구성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4는 피카소가 장미 시기에 주로 사용한 베이지 색과 장밋빛의 색채를 활용하여 여성스러운 곡선과 메이크업의 표현과정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세 여인을 구성하여 메이크업의 농담에 따라 다른 모습의 여인을 표현하였고, 고풍적인 여성미를 드러내기 위해 세명의 여인을 구성을 각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는 큐비즘의 특징인 분할된 이미지를 어두운 색채를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도시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현대적인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큐비즘에 보여지는 무거운 색상과 분할된 이미지를 응용하여 피부가 유리처럼 깨지는 인물로 표현하였고, 직선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를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작품 6은 신고전주의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살려 부드러운 곡선과 덩 톤의 색상을 활용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추상회화를 벗어난 피카소의 미술양식

의 영향으로 차분한 이미지의 여인을 표현하였고, 울가의 고상함과 어울리는 환상적인 요소인 꽃을 더해 우아한 분위기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7, 8은 형태를 파괴한 자유로운 점, 선, 면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위해 간결하게 재구성하고 현대적인 요소들을 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7은 인물 표현을 달콤한 색상으로 변경하여 모티브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 테레즈의 동안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8은 모티브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러 색상을 잡지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콜라주 기법으로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화려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현대적인 의상으로 인물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의 결과를 통해,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의 무궁무진한 다양성과 창조적인 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색채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이 들어나는 인물 표현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써 창조적인 예술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메이크업의 전달을 비롯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한 종합예술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피카소의 회화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20세기 이후 미술사조는 더욱 다양한 표현기법과 예술가들에 의해 많은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작업을 하였기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특징의 회화형태의 분석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영걸, 김현선(2011). '쉬운 색채학'. 서울: 날마다
- 김덕태 외(2001). '색채학'. 서울: 일진사
- 김시찬, 한정아, 서은혜, 박선영, 이숙연(2010).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현문사
- 김희선, 박춘심, 양수미, 양진희, 조고미(2009). '색채 디자인'. 파주: 광문각
- 박선주, 신지영, 장미혜, 최경옥, 이현주(2007).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대전: 대경
- 배용진, 장성란(2010). '디자인을 위한 색채'. 파주: 지구문화사
- 백남원(2013). '채색의 기술'. 서울: 연두m&b
- 안상락, 송종율(2012). '색·색채디자인'. 서울: 태학원
- 이명선, 설현진, 태동숙(2005). '미용색채학'. 서울: 군자출판사
- 이영애, 이귀영, 노선옥, 전선정(2000). '뷰티 디자인과 색채학'. 서울: 청구문화사
- 임미라(2007). '뷰티 일러스트레이션과 컬러리스트'. 대전: 대경
- 천지연(2001). 'FACES IN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 최승규(2004). '피카소의 연인들'. 서울: 한명
- 한지수(201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경춘사
- 마틸데 바티스티니, 박나래 역(2009). '피카소 현대 미술의 혁명'. 파주: 마로니에 북스
- 로버트 휴즈. 박누리 역(2008). 'Picasso 명작 400선'. 파주: 마로니에 북스
- 프란체스코 갈루치. 김소라 역(2007). '피카소 무한한 창조의 샘'. 파주: 마로니에 북스
- 피에르 텍스. 정진국 역(1991). 'PICASSO'. 파주: 열화당
- 팀 힐튼. 이영주 역(2010). 서울: 시공아트
- 하요 뒤흐팅. 엄미정 역(2009). 'Pablo Picasso'. 서울: 예경
- 탄 하우스. 최인려 외 역(2010). 'Character costume figure drawing by Tan Huaixiang'. 서울: 예림

학위논문

- 강신국(2000).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연진(2008). '대중문화의 Beauty Icon 연구 - 2000년대 국내뷰티아이콘을

-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신(2011).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 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보형(2009). '인체소묘의 조형성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2002). '피카소의 색채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2005).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 회화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2009). '큐비즘적 표현을 응용한 파티션 연구 : 투시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재(2013). '인쇄매체 광고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동양화 용묵법(用墨法) 활용에 따른 기호학적 접근의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문화예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라(2011). '드로잉 기법에 의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 재질감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2010). '초현실주의를 통한 현대 작가의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종표(1982). '입체주의 형태의 분석적 연구 : PICASSO의 생애와 그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지미(1990). '피카소 작품을 주제로 한 의상디자인 : 도예에 나타난 그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의상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2). '개념미술 이후, 회화로의 복귀 : 제프 월(Jeff Wall) 사진에서 보이는 회화적 요소'.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2002). '고구려 벽화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 핸드 니들 편칭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수정(2004). '20세기 초 미술에 나타난 아프리카 원시조각의 영향에 관한 고찰 : 마티스, 피카소, 브라쿠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노경아(2005). '조형교육을 위한 무대 모형 연구 - David Hockney의 무대미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노희선(2004).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중희(1998).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에 나타난 청색의 상징적 의미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상지(2008). '현대 미술의 오브제 특성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전후 미술 사조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논문

- 박찬휘(2013). '칸딘스키 추상미술의 특성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유미(2009). '점을 통한 조형, 회화 학습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찬우(2013). '초현실주의 경향의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숙(2002). '파블로 피카소의 미술세계가 무대미술에 미친 영향 : 춤이 있는 무대미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생활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민정(2005). '성격유형에 따른 색채 이미지와 선호 색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약원(2012).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초현실 패션사진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희(2013). '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 : 시각·촉각 표현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대식(2007).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아트 표현의 실제'.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오근(2003). '피카소의 예술과 Printmaking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혜란(2005). '현대미술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 연구 - 초현실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위수연(2006). '피카소(Picasso)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꿈의 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복식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12). 'Photoshop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민혜(2010). '중학교 미술수업에서 Pablo Picasso 회화에 나타난 상징성을 통한 그리기 지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2006). '조형요소를 이용한 현대 장신구 연구 - 점, 선, 면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예지(2012). '대중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 :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5). '일러스트레이션을 응용한 메이크업 이미지 표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아(2010). '색채를 통한 추상적 감성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2005). '블루 컬러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훈(1990). '파브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에 관한 연구 : <아비뇰의 아가씨들>과 <게르니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순호(2006). '계절에 따른 Make-up의 색채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코디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1982). '피카소의 도예작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준미(2007). '운필선묘와 드로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2005). '효과적인 뷰티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대구대학교 미술디자인학과 서양학과전공 석사학위논문
- 주희(2009).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내재된 조형요소와 상징성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2005). '피카소의 오브제 미술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혜원(2007). '대중 예술의 미적 정당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하경연(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복순(2001). '피카소의 <잘평방꼬 가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서양미술사 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수현(2013). '아프리카 원시조각의 조형성을 모티브로 한 금속 장신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유진(1997). '피카소의 미술가와 모델 주제의 초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전공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 곽혜선, 추선형, 이연희(2012). '패션과 뷰티 유행색의 비교 분석 : 2010~2013년 트렌드 컬러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26(4)
- 김동철(2003). '조형기법으로서의 Collage의 표현과 역할 :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김영삼(2011). '연극 "피카소의 여인들"의 무대 의상 제작 시스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9(1)

- 도정남(2004).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작품에 나타난 무대장치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41
- 박노은(2010). '피카소의 회화에 나타난 색채 연구'. 한국색채학회 24(2)
- 박은희(2008). '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10(3)
- 박선희(2008).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 나타난 색채배색과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 6(4)
- 반미선(2004). '큐비즘의 회화를 응용한 구두디자인 연구 : 피카소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배빈아(2011). '국내 광고의 순수회화 활용사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 전시디자인 연구소 한국과학예술포럼 8(1)
- 성광숙(2000).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업적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0(7)
- 소수만(2009). '세잔, 피카소, 스타인, 헤밍웨이: 그들 기법의 영향관계'. 대한영어영문학회 35(3)
- 오병욱(2007). '피카소와 분석적 입체주의', 대한토목학회 55(2).
- 오현숙(2006). '피카소 작품세계에 나타난 색채심리와 색채 치료적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13(2)
- 유대혁, 윤천성(2010). '픽셀이미지를 활용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코렐페인터를 중심으로'. 한국뷰티산업학회 4(2)
- 윤익영(2000). '<아비뇽의 아가씨들> 양식의 기원과 탄생'.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4
- 이동수(2012). '현대미술에서 회화적 이미지의 개념화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상미디어협회 11(1)호
- 이명곤(2011). '근대 프랑스 미술문화에 나타나는 "자유의 이념" - 세잔, 고흐. 피카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7
- 이명곤(2011). '연구논문 : 푸코의 구조주의를 통한 피카소 예술의 이해'. 한국동서철학회 61
- 이상봉(200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 4(1)
- 이용우(2010). '점, 선, 면 기초 조형요소를 활용한 광고크리에이티브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13(4)
- 이지연, 조우현(2011). '점, 선, 면을 통해 본 분장디자인.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7(2)
- 이선주(2012). '색채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변화 연구 : 2010년부터 2012년 트렌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 6(3)
- 이용주(2000). '아폴리네르와 피카소 = Apollinaire et Picasso'.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
- 이춘섭(2006). '입체주의 미술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실내 디자인과의

- 상관성(I),(II)'. 천안대학교 진리논단 13
- 임미연(2009).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꼴라주 표현기법에 관한 분석'.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5(1)
- 조미자(2012). '점, 선, 면을 활용한 네일아트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구 서울지다인포럼학회) 18(2)
- 최나영, 김문숙(2001). '피카소의 무대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 Parade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1(4)
- 최정선(2000). '피카소의 1930년 <십자가 책형 Crucifixion>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4
- 홍승완(2002). '디자인에 있어 색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 및 국외 웹 사이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1(1)
- 문철(2000).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입체주의적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디자인 논문집 5

인터넷 검색

- <http://blog.daum.net/isweb> (검색일자: 2013.12.28)
- <http://www.starming.com> (검색일자: 2013.10.23)
- <http://www.dzineblog360.com> (검색일자: 2013.10.23)
- <http://el.ozonweb.com> (검색일자: 2013.10.23)
- <http://www.museodelprado.es> (검색일자: 2013.11.03)
- <http://www.musee-orsay.fr/en> (검색일자: 2013.11.03)
- <http://www.musee-picasso.kr/> (검색일자: 2013.11.03)
- <http://www.metmuseum.org> (검색일자: 2013.11.09)
- <http://www.albrightknox.org> (검색일자: 2013.11)

ABSTRACT

A Study of Beauty Illustration applied Pablo Picasso's Art

Baek Ji Eun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scovering the new art pattern comes through fresh artistic view. Picasso was various kind of art pioneer. Yet, His art pattern and illustration is keep recreated. The researcher will recreate as beauty illustration which is the most pictorial way. Beauty illustration is effective way to express real make-up and illusionary image and it become creative design art based on freedom, quality and popular appeal. the Drawing for make-up was more valued as for recording not for art. today, we have new Beauty Illustration area so there are various t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Pablo Picasso's paintings and traits by suggesting beauty illustration's artistic value and diversities as making pieces. In practical method of study, classified Pablo Picasso painting's traits and colors based on literature and internet sources. Then modify the characters in Picasso's paintings and visualizing them.

Firstly classifying his paintings in 6 area as the early period, blue period, rose period, cubism, neo-classicism, surrealism. Then made beauty

illustration work from chosen motivated art.

Work 1, <An Expressionless Face> expresses a fancy dancer using colorful tones and pointage method and modern factors are added by applying magazines.

Work 2 and 3 which are made in types of blue period are painted in two different designs and expressed by monotonous frame and blue colors. Work 2 <A Aurora Woman> represents an imaginary woman in virtual space. Work 3 <Modern Harlequin> is reinterpreted Harlequeen as a modern image that is described.

Work 4 <Shining Faces> is a type of work in rose period which shows process of change of make up consist of three women motivated by painting of a making up woman of Picasso. Composition of three characters represent women's curvesomeness with different angles to elicit warm and affluent image contrasted with simple and cold image of blue period.

Work 5 <Cubism> focuses on cubism's painting trait that expressed with an women in strong make up and cubic figures. It is expressed with monotonous make up brown color pointed eye make up and figures looks like broken glass for cubical format. In addition, strong smoky make up stresses three dimensional cubism form with strong gaze of character and the least shade expression.

Work 6 <Lover and Flowers> is the type of neo-classicism and describes his lover 'Olga' using the image of flowers.

Work 7, 8 are designed by two different ways which are the types of surrealism. The first surrealism work <Sweet Dream> is work of the geometric expression and of the simplification of the figure using pastel

which is the opposite style of Picasso's use of the primary colors. The second work <Lady of my last fantasy> is the type of collage. It is first drawn and then attached by modernistic pictures from the magazines.